

고려시대 분묘출토 墳墓出土 청자유물 靑磁遺物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Celadon Excavated in Grave of Goryeo Dynasty



강진청자박물관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 및 강진청자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고려시대
墳墓出土분묘출토
靑磁遺物청자유물 특별전

「 전시관계기관 」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 전시 」

총괄 윤순학 강진청자박물관장
기획 윤순학 조은정
진행 조은정 노상범 박근기 이영순 조진우

「 도록 」

기획편집 윤순학 조은정
논고 한성욱 남진주 김병수 차순철
촬영 K·TWO STUDIO _ 남기용
원색분해 그래픽네트
복디자인 그래픽네트 _ 송인혜 윤이나
인쇄 (주)중앙문화인쇄

인쇄일 2007년 8월 31일

발행일 2007년 9월 6일

© 강진청자박물관 2007

ISBN 978-89-960064-1-1

康津靑磁博物館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117

Gangjin Celadon Museum, 117 Sadang-ri, Daegu-myeon,

Gangjin-gun, Jeollanam-do, KOREA, 527-872

Tel _ 061 - 430 - 3712, 3722

Fax _ 061 - 430 - 3719

고려시대
墳墓出土분묘출토
靑磁遺物청자유물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Celadon Excavated in Grave of Goryeo Dynasty

특별전을 열며

올해는 강진청자박물관 개관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와 개관10주년을 기념하는 한마당에 특별전과 학술세미나를 마련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 태안 반도에서 인양된 청자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당시 수도인 開京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 중에 침몰한 선박에서 수많은 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전국 각지에서 고려시대 무덤 群이 활발히 발굴되면서 고려청자의 消費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덤이나 바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소비된 청자의 종류와 이동경로, 消費處 등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被葬者가 生前에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무덤에 같이 副葬하기 때문에 당시 실생활에 어떠한 용품을 사용했는가와 당시 사람들의 死後世界에 대한 인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자의 消費라는 관점에서 무덤에 부장품으로 사용된 청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와 학술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매장문화재 유물을 實見하고, 각 지역별 분묘 출토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전에 유물을 대여해 주신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과 세미나 논고를 집필해 주신 한성욱, 남진주, 김병수, 차순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전과 세미나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청자박물관 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9월

강진군수 황주홍

Exhibition Opening

This is the 10th Anniversary of Gangjin Celadon Museum. We would like to invite you in special exhibitions and academic seminar celebrating the 12th Gangjin Celadon Festival and the 10th Anniversary.

Recently, numerous Celadon was discovered from ships went down while moving from Gae-gyeong which was the Capital of Goryeo Dynasty to other regions and Celadon salvaged from Tae-an Peninsular, Chungchŏngnam-do. New informations are being discovered related with the consumption of Celadon by being excavating groups of Goryeo Dynasty graves in recent year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se relics discovered from graves or sea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for finding out the types of Celadon used and its routes of transportation, locations where they were used. Especially, relics discovered from graves give us a chance to find out what kinds of goods were used in real lives since daily goods used by deceased were usually buried together and we can study people's awareness on afterlives at that time.

Thus, we have prepared an exhibition and academic seminar with Celadon used as burial accessories from the view point of Celadon consumption.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actually look at the burial relics open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nd to find out the status on burial accessories according to regions.

Lastly,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gratitude to officers from National Gwangju Museum and National Jeonju Museum who have loaned relics in this special exhibition and offer my thanks to Han Sung Wook, Nam Jin Ju, Kim Byŏng Soo, Cha Soon Cheol who have contributed in articles for seminar, and I offer my thanks to the employees of Celadon Museum who have worked so hard in preparat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and seminar.

September 2007

Mayor, Gangjin-County Hwang Joo 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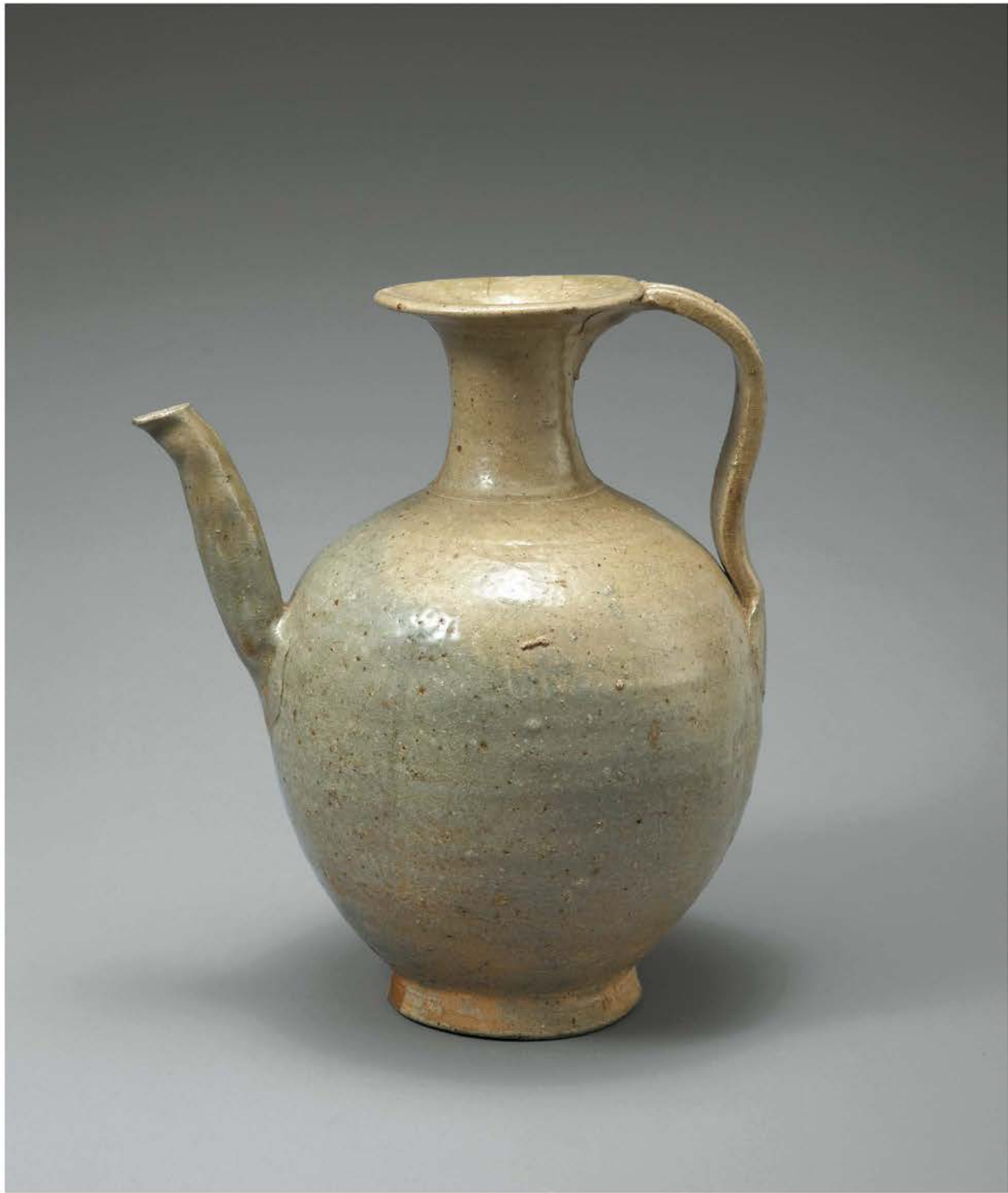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2007.09.08 - 10.07의 전시도록이다.
2. 본문은 각 유물의 도판과 함께 해설을 같이 수록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유물의 명칭과 편년, 도판해설은 본 박물관 학예연구실의 견해에 따랐다.
4. 유물의 한글명칭은 무늬와 형태를 중심으로 쉽게 표기하였다.
5. 도판해설은 유물의 명칭(한글, 한문, 영문), 시대, 크기 순으로 표기하였다.
6. 유물의 실측 단위는 cm이다.

목 차
Contents

특별전을 열며 Exhibition Opening	4
도판 Plates	8
논고 Articles	84
1. 고려릉 陵 출토 청자의 연구 _ 한성옥	86
2.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_ 남진주	98
3. 호남지역의 고려분묘 출토 청자 연구 _ 김병수	114
4.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 군에 대한 조사와 향후 전망 _ 차순철	126
도판목록 List of Plates	144

도판
圖版



01
참외모양 주전자 靑磁 瓜形 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고려시대 10세기 높이 23.0 입지름 8.2 굽지름 7.8 전남 보성
국립광주박물관



1977년에 전남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산31-1에서 출토된 주전자이다. 이 유물과 함께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자잔 등이 공반(共伴) 출토되었다. 구연이 넓게 외반(外反)되었고 둥근 동체부에 비해 목이 짧은 편이다. 목과 동체부의 경계는 양각의 한 줄 선으로 구분하고, 동체부의 중간부분 네 곳을 세로로 얇게 음각하여 과형(瓜形)모양을 만들었다. 굽은 밖으로 약간 벌어졌으며 굽 안은 깊게 깎여 있다. 손잡이는 그 상부를 구연에 직접 붙여 바로 휘어 내려오게 붙였는데, 그 윗면에는 도톰한 양각의 한 줄 선이 있으며 동체부에 눌러 붙인 곳은 심엽형(心葉形)으로 마무리하였다. 태토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거칠고, 유색은 어두운 회백색(灰白色)으로 유층(釉層)이 매우 얇다. 굽 안바닥 일부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유약이 덜 녹아 황색을 띤다.







02

청자 일괄 青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25.0(오른쪽 병)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1996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98-2에서 청자 광구병 2점, 청자대접 2점, 접시와 잔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광구병에 보이는 철화기법, 잔에 국화무늬를 시문한 압출양각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접과 접시, 잔은 모두 모래섞인 내화토를 받쳐 구웠으며, 특히 접시는 유태(釉胎)가 대접과 잔에 비해 조질(粗質)이어서 생산지가 달랐거나 별도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03
국화무늬 꽃모양 잔 靑磁 壓出陽刻 菊花文 花形 盞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mpress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4.1 입지름 11.0 굽지름 3.9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크기가 작은 잔으로 내면에 국화꽃가지가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구연^{口緣}의 다섯 곳을 도려내어 꽃모양을 만들었으며, 내면 역시 다섯 개의 꽃잎이 두 줄의 융기선^{隆起線}에 의해 서로 겹쳐지도록 구획되어 있다. 다섯 개의 꽃잎에는 각각 국화꽃가지가 압출양각되어 있고, 내저면 중앙에도 꽃 한 송이가 도드라져 있다. 유약은 굽 안바닥까지 시유되었으며, 어두운 회청색을 띤다. 굽은 내경^{內徑}한 다리굽으로 굽 안바닥이 얇게 깎여있다. 굽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빛을 받침을 받쳐 구웠다.





04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6.5 입지름 17.6 굽지름 5.8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측선이 대접의 저부에서 구연까지 거의 사직선을 이루는 모양이며, 구연의 끝이 날카롭다. 굽은 내경된 다리굽이다.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한 줄 둘러졌으며, 내저면(內底面)에는 굽지름보다 좁은 원각(圓刻)이 있고, 모래섞인 내화토 빛을 받침이 세 개 남아 있어 포개구웠음을 알 수 있다. 유약은 어두운 회청색을 띠며 유층이 매우 얇다. 유면에 기공(氣孔)과 철반점(鐵斑點)이 있다. 굽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접지면에 모래섞인 내화토빛을 흔적이 있다.





05
접시 靑磁 標匙
Celadon dish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3.6 입저름 13.8 굽저름 5.5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높이가 낮고 구연이 넓게 외반^{外反}된 접시이다. 태토에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표면이 매우 거칠고 유약 또한 어두운 녹갈색^{綠褐色}을 띤다. 내면은 완만한 곡면^{曲面}이고 내화도빚음 받침을 네 개 받치고 포개구웠다. 굽 깎음이 일정치 않으며, 굽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쳤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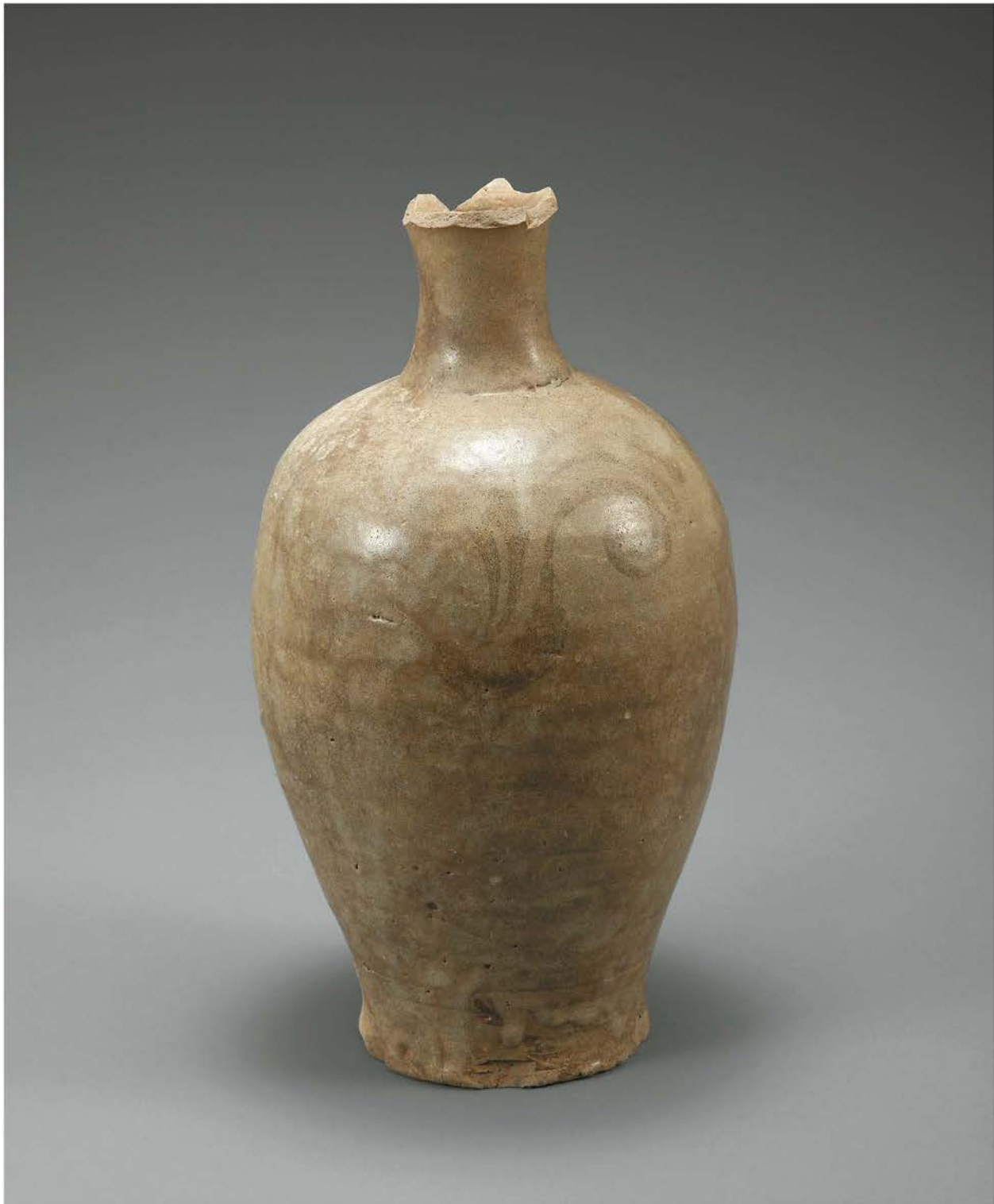
녕쿨무늬 광구병 靑磁 鐵花 唐草文 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painted vine design

고려시대 12세기 현재높이 23.0 굵지름 10.8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구부口部가 결실^{결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목 부분의 끝 상태로 보아 광구형^{廣口形}으로 추정된다. 병의 어깨부분과 동체부의 저부에 뚜렷한 각이 저서 꺾이는 형태이며, 굽도 매우 높고 직립^{直立}했다. 굽 높이에 비해 굽 안바닥은 얇게 깔여 있다. 어깨 윗부분과 동체부 전면에 철화^{鐵花}로 닙쿨무늬가 그려져 있다. 어깨 위 편평한 부분에 간략한 닙쿨무늬를 세 개 돌렸으며 몸체에도 꽃가지모양의 닙쿨무늬가 세 곳에 배치되어 있다. 무늬의 선이 활달하고 농담^{濃淡}의 변화가 있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유층^{釉層}이 얇다. 굽과 동체부의 저부는 번조온도가 낮아 유약이 녹지 않은 상태이다.





07

녕쿨무늬 광구병 靑磁 鐵花 唐草文 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painted vine design

고려시대 12세기 현재높이 25.0 굵지름 8.6 전남 무안
국립광주박물관

구부口部가 결실^{결실}된 광구병으로 같이 출토된 광구병과는 형태가 다르다. 목 부분과 어깨의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어깨선은 등글고 몸체는 부드럽게 체감되어 굽에 이르는 형태이다. 태토에는 많은 사립^{沙粒}이 섞여있고 유약도 잘 녹지 않아 황갈색을 띤다. 몸체의 닳아빠진 부분도 희미하게 남아 있다.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으나 역시 번조온도가 낮아 황색을 띤다.





08

주구가 있는 향아리 靑磁 注口 壺
Celadon Jar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8.5 입지름 6.0 굽지름 5.0 전남 진도
국립광주박물관

1979년에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2-11에서 출토되었다. 구부가 짧게 세워지고 구부에서 급격히 벌어진 어깨는 동체의 최대경最大徑을 이루며 점차 좁아들어 굽에 이른다. 어깨 한 쪽에 주구注口가 부착되었는데 동체와의 이음부분에 흔적이 있고, 주구는 네 면을 약간씩 눌러 각이 져 있다. 무늬는 없으며, 유색釉色은 밝은 녹갈색을 띤다. 굽은 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어 만들었으며 번조시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접지면과 안바닥에 모래빛음을 받쳐 구웠다.





09

명문이 쓰여진 대접 靑磁「乙巳」銘 大楮

Celadon Bowl with ink-written inscription

고려시대 1065년 또는 1125년 추정 높이 6.6 입지름 16.5 굽지름 5.2 전남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1987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산71에서 출토되었다. 대접 안쪽 면에 묵서墨書로 된 명문이 있는 대접이다. 명문은 내저 중심에서 구연부쪽으로 다섯 개의 방사선 모양으로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乙巳 三月十五日 金瓚壽 置表」로 묘주墓主인 김찬수의 시신屍身을 안치하기 전에 무덤 위치를 잡아놓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축선이 구연에서 저부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내경內頸한 다리굽이다. 내면 구연 바로 아래에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으며, 내저면 중심에 원각이 있으나 유약이 묻쳐있어 뚜렷하지는 않다. 유약은 녹색색을 띠며, 광택은 없는 편이다. 굽 안바닥까지 시유하였고 접지면의 유약은 닦아냈다. 접지면과 굽 안바닥에 굽은 모래를 깔고 구웠다.







10

청자 일괄 靑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23.8(매병)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1988년 전남 함평군 신평면 보여리 381에서 출토된 청자유물이다. 매병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은 유태釉胎의 질이 매병과 달라 생산지가 달랐거나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무늬가 없으며, 대접고 접시 4점은 모두 굽의 측면과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히지 않은 것과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을 한 줄 돌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II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7.9 입지름 16.4 굽지름 6.2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구연과 기별 일부가 결손된 대접이다. 구연 끝이 짧게 전을 이루듯 도톰하게 외반되었으며, 측선이 저부에서 등글게 벌어져 오르고, 굽은 약간 높고 외반되었다. 내저면이 넓은 곡면이며 가장자리에 굽은 음각선으로 된 원각이 있다. 태토는 공반 출토된 매병과는 달리 잘 수비된 상태이다. 유약은 맑은 녹갈색을 띠며 광택이 있고, 유면(釉面)에 빙얼(氷裂)이 심하다. 굽은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히지 않았으며, 접지면 네 곳에 모래섞인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I2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7.5 입지름 16.4 굽지름 5.7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측선이 저부에서부터 구연까지 완전한 곡선을 이루는 대접이다. 굽은 내경된 다리굽으로 단정하게 깎여 있다. 내면 구연 바로 아래에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으며, 내저면 중심에 지름 2.5cm 정도의 좁은 원각이 있다. 유약은 밝은 회청색을 띠며 유약이 뭉쳐 흘러 내린 곳은 유리처럼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 이 대접 역시 굽은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접지면 네 곳에 모래섞인 내화토빔음을 받쳐 구웠다.





I3
접시 靑磁 標匙
Celadon Dish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5.0 입지름 15.7 굽지름 5.7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구연 일부가 결손되었으며,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는 접시이다. 내저면이 넓은 곡면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진 넓은 음각선은 기벽과의 경계를 이룬다. 외면도 이 지점에서 한 번 만곡하여 구연까지 사직선을 이룬다. 태토에 굵은 모래가 소량 섞여 있으며 유약은 회녹색으로 빙열이 심하다. 유약은 회청색을 띠며 빙열이 심하다. 굽은 낮고 내경된 다리굽이다. 굽과 굽 안바닥은 유약을 입히지 않았으며, 접지면 주위로 네 곳에 내화토빛을 받침 흔적이 있다.





I4

접시 靑磁 楮匙
Celadon Dish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3.9 입저름 12.6 굽저름 4.9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구연이 도톰하게 외반되고 구연 바로 아래에 한 줄 음각선이 둘러졌다. 내저는 넓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가는 내저선각(內底線刻)이 있다. 유태는 다른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질을 보이며, 유색은 맑은 녹갈색을 띤다. 내저면에 굵은 모래같은 잡물이 붙어 있어 갑발에 넣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접지면 네 곳에 모래섞인 내화토빛음 흔적이 남아 있다.





15

매병 靑磁 梅瓶

Celadon Bottle, *Maebyeong*

고려시대 12세기 현재높이 23.8 굵지름 10.2 전남 함평
국립광주박물관

구부가 결손缺損되었으며 기벽器壁이 매우 얇은 매병이다. 어깨선이 공 모양처럼 둥글고 몸체 저부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이다. 굽은 바닥 중심만 오목할 뿐 평저平底에 가깝다. 태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유색釉色은 갈색이 약간 감도는 녹청색을 띤다. 구부 아래와 어깨에 한 줄씩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16
청자 일괄 靑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1세기~12세기 높이 29.8(병) 전북 진안 수천리 18호 석곽묘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진안 수천리 분묘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청자와 청동유물, 도기들이 출토되었다. 청자의 종류는 발, 대접, 접시, 병, 유병 등이 있고, 무늬는 무문無文이거나 연꽃잎무늬, 모란넝쿨무늬 등이 있다. 특히 18호 석곽묘에서는 국화무늬가 상감된 주전자와 연꽃잎무늬가 음각된 대접과 접시, 청자광구병이 공반共伴 출토되었다.



I7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 陰刻 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7.8 입지름 16.0 ~ 16.9 굽지름 5.9 전북 진안 수원리 18호 석곽묘
국립전주박물관

외면에 연꽃이 음각되어 있는 대접이다. 측선이 구연에서 저부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직립한 다리굽이다. 내저면 중심에 지름 3.0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 11개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지도록 음각되어 있는데 정교하지는 못하다. 유약은 녹청을 띠기는 하나 기포가 많아 약간 탁하다. 태토에 굵은 모래가 일부 섞여 있다. 굽 접지면과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고, 안바닥 세 곳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18

연꽃잎무늬 접시 靑磁 陰刻 蓮瓣文 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4.6 입지름 16.8 굽지름 6.2 전북 진안 수천리 18호 석곽묘
국립전주박물관

내저면이 넓고 외면에 연꽃이 음각된 접시로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태의 질, 음각된 연꽃무늬, 굽는 방법 등이 대접과 동일하여 같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저면 가장자리에 음각선이 한 줄 둘러져 있으나 유약에 묻혀 희미하다. 굽은 낮고 안쪽으로 기울었다. 굽 안바닥 세 곳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19

입넓은 병 靑磁 廣口瓶
Celadon Bottle

고려시대 11세기 높이 29.8 입지름 7.9 바닥지름 9.4 전북 진안 수천리 18호 석곽묘
국립전주박물관

다른 공반 유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광구병이다. 입이 넓은 광구형태이며, 목이 비교적 짧고 몸체는 저부로 내려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어 양감<量感>이 적은 형태로 성형되었다. 유태의 질이 조질<粗質>로 표면이 거칠고 부풀어 오른 곳이 있다. 유약도 짙은 녹갈색을 띠며, 고르게 시유되지 않고 뭉쳐 흘러내긴 곳도 있으며 일부는 박락<剝落>되었다. 굽은 없는 평저 형태이고, 바닥면에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으며 전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20

국화무늬 주전자 靑磁 象嵌 菊花折枝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12세기 현재높이 15.0 입지름 3.7 굽지름 9.5 전복 진안 수천리 18호 석파묘
국립전주박물관

뚜껑과 손잡이, 주구가 결실된 주전자로 동체부에 국화무늬가 상감되어 있다. 발견당시에도 뚜껑은 없었다고 한다. 손잡이는 두 줄의 흠 띠를 꼬아서 만들어 붙였다. 국화무늬는 동체부 양면에 이중의 원안에 꽃가지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상감되어 있다. 유태는 정선된 편이나 유색이 탁하고 일부 산화되어 갈색 또는 짙은 녹갈색을 띠기도 한다. 굽은 안 바닥만 얇게 깎아낸 속굽이며, 가장자리 다섯 곳에 모래섞인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

모란넝쿨무늬 대접 靑磁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mpressed peony vine design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6.3 입지름 18.8 굽지름 5.0 전북 진안 수천리 30호 석파묘
국립전주박물관



내면 전체에 압출양각기법으로 무늬가 가득 시문된 대접이다. 구연 여섯 곳을 도려내어 꽃모양花形을 만들었으며, 내면 기벽 역시 돌출된 세로 선으로 면이 구획되어 있다. 내면 구연 아래에는 음각선을 한 줄 돌렸고, 내저면 중심에는 지름 5.0cm의 원각이 있으며 여기에 만개한 모란꽃이 시문되어 있다. 기벽 여섯 면에 활짝 핀 모란꽃이 상하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태토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표면이 거칠고, 유색은 옅은 녹갈색을 띠며 유층이 얇은 편이다. 굽은 내경하였고, 굽 접지면 네 곳에 모래섞인 내화토빚음 흔적이 남아 있다.







22

청자 일괄 青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26.2(광구병) 전북 정읍
국립전주박물관

1984년에 전북 정읍군 용동면 칠석리 산95에서 발견된 청자 유물이다. 크기가 현저히 차이나는 유물들이 세트를 이루고, 광구병은 도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향아리 형태의 주전자는 그 형태가 보기 드문 것으로 도판8과 유사하다. 시문기법으로는 압출양각기법, 퇴화기법이 사용되었다.



23
꽃모양 접시 靑磁 花形 標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1.4 입지름 8.9 바닥지름 4.2 전복 정음
국립전주박물관



크기가 작고 굽이 없는 평저 형태의 접시이다. 구연이 전을 이루듯 외반되었고 가장자리를 여덟 개의 꽃잎모양으로 도려낸 후 내측면에도 요철凹凸이 생기도록 성형하였다. 바닥은 평저이면서도 중심이 약간 오목하게 깎여 있는 형태이다. 태토는 잘 정선된 편이나, 유약은 짙은 회녹색을 띠며 탁하고 빙얼이 있다. 바닥면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낸 후 모래빛음을 받쳐 구웠다.





24

꽃무늬 접시 靑磁 堆花 花文 標匙

Celadon Dish with underglaze painted flower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3.0 입자름 11.9 굽지름 4.0 전복 정음
국립전주박물관



내저면이 넓고 내저면 가장자리에서 직각으로 꺾여 구연이 곧추세워진 형태의 접시이다. 구연이 약간 외반되었다. 내저면 중심에 음각된 원이 있고 그 안에 백색 점으로 원을 만들고 중앙에 흑색 점을 찍은 꽃무늬가 있다. 외면 기벽에도 동일한 무늬가 세 곳에 등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약은 옅은 녹갈색을 띠며 유층이 얇고 가는 빙열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 낸 다음 접지면 전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25

모란무늬 접시 靑磁 壓出陽刻 牡丹文 楨匙
Celadon Dish with impressed peony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3.6 입지름 16.5 굽지름 5.3 전복 정음
국립전주박물관



접시 내면에 모란꽃이 크게 시문된 접시이다.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을 한 줄 돌렸으며, 내저면과 기벽에 활짝 핀 모란꽃을 압출 양각기법으로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표면이 거칠고 철반점이 많다. 유약은 회녹색을 띠며 빙열이 많다. 굽은 매우 낮고 접지면 전면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26

소용돌이무늬 주전자 靑磁 貼花 渦線文 注子
Celadon Pitcher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15.1 입지름 17.1 굽지름 9.7 전복 정음
국립전주박물관

크기가 큰 항아리 형태의 주전자이다. 구연이 약간 외반되었으며, 입지름이 넓고 구연에서 바로 어깨로 이어지는 항아리 모양이다. 어깨 아래에 짧은 주구注口가 있다. 또한 동체부 가장 넓은 부분 양쪽에 흙 띠를 소용돌이 모양으로 붙여 장식하였다. 태토는 잘 정선되었고 유약은 회녹색으로 광택이 있다. 몸체 저부는 유약이 덜 녹아 일부 황색을 띠기도 한다. 굽은 매우 낮고 굽 안바닥 네 곳에 모래빛음을 받쳐 구웠다.





27

입넓은 병 陶器 廣口瓶
Earthenware Bottle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26.2 입지름 6.7 바닥지름 9.2 전북 정읍
국립전주박물관

구연이 크고 넓은 광구廣口형태의 도기병이다. 목이 비교적 가늘고 길며 어깨에서 만곡하여 병의 저부까지 사직선을 이룬다. 다른 도기광구병에 비해 어깨에서 각이 몸체 저부까지 사직선으로 좁아드는 형태이다. 바닥은 평저平底이다. 태토는 흑회색 黑灰色으로 매우 정선된 편이다.







22

청자 일괄 青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3세기 ~ 14세기 높이 19.5(주전자) 전북 고창 국립전주박물관

1991년에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산16에서 출토된 청자이다.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가 2점이 발견되었으나 1점은 구연이 일부 결실(缺失)된 상태이다. 주전자는 역시 구부(口部)와 손잡이, 주구 부분이 이미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접시, 향아리, 주전자라는 세트구성을 보여 준다.



29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 靑磁 象嵌 菊花文 花形 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 14세기 높이 3.3 입지름 10.4 굽지름 5.5 전북 고창
국립전주박물관





똑같은 접시가 두 점 출토되었으나 한 점은 구연 일부가 결실된 채로 확인되었다. 22개의 꽃잎모양으로 구연 가장자리를 반원형으로 도려내고 접시의 기벽도 압출양각기법으로 각 꽃잎을 돌출된 선으로 구분하였다. 외면 기벽에서도 다시 한 번 세로로 길게 눌러 꽃모양을 만들었다. 22개의 각 꽃잎에는 국화무늬를 하나씩 상감하였다. 국화무늬 상단과 하단에는 두 줄의 선과 연꽃잎무늬를 각각 백상감으로 처리하였다. 유색은 녹갈색으로 투명하며 광택이 있다. 굽은 안바닥만을 얇게 깎은 속굽 형태이며,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30

원무늬 접시 靑磁 陰刻 圓文 標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circle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 14세기 높이 3.6 입지름 10.2 굽지름 6.0 전북 고창
국립전주박물관



저부에서 직각으로 꺾여 구연까지 직립한 형태의 접시이다. 굽은 약간 돌출된 정도로 매우 낮다. 내지면 중간지점에 두 줄의 원과 내지면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을 음각선으로 시문했다. 외면 역시 기벽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한 줄씩 음각선을 돌렸다. 유태는 정선된 편이고, 유색이 밝은 회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굽 접지면과 안바닥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31
국화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 菊花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 Pitche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 14세기 현재높이 19.5 굽지름 10.7 전북 고창
국립전주박물관



목부위와 손잡이, 주구 등이 결실되었으나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임을 알 수 있다. 기벽이 매우 두껍고 일부는 부풀어 오른 곳도 있다. 몸체는 여덟 개의 종선(縱線)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종선은 양쪽을 경사지게 음각하여 돌출시켰다. 각 면에는 국화무늬를 도장을 찍어 상감하였다. 주구(注口)는 안쪽 단면이 마름모꼴로 각이 져 있으며, 바깥면은 여러 겹의 입사귀 모양으로 조각한데다 음각선으로 세선(細線)까지 표현하였다. 손잡이는 몸체 저부에서부터 길게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음각하여 장식하였다. 유약은 녹색색을 띠며 맑고 광택이 있으며, 전면(前面)에 가는 빙얼(氷裂)이 있다. 굽은 직립한 다리굽이며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전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32

항아리 靑磁 甔

Celadon Jar

고려시대 13세기 ~ 14세기 높이 9.8 입지름 22.2 굽지름 16.7 전북 고창
국립전주박물관

크기가 큰 항아리로 입지름이 넓다. 구연이 도톰하게 성형되었고 구연에서 곧바로 거의 수평을 이루며 어깨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무늬는 없으며, 항아리 내면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다. 굽은 약간 돌출되어 있는 정도로 매우 낮다. 굽지름도 입지름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넓다. 유태가 비교적 정선되어 표면이 일정하고, 유층도 균일하며 담록색을 띤다. 굽 접지면과 안바닥에 유약을 모두 입힌 후 굽 안바닥 세 곳에 모래빛음을 넓게 받쳐 구웠다.







33

청자 일괄 青磁 一括

Celadons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6.4(우) 전남 고흥
국립광주박물관

1979년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에서 발견된 청자 유물이다. 두 점 이외에 앵무무늬가 음각된 청자 유병 1점, 손잡이가 있는 청동거울 1점이 공반 출토되었다. 특히 합과 항아리는 무늬구성, 시문기법 등이 유사하여 처음부터 세트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4
 국화넝쿨무늬 항아리 靑磁 象嵌 菊花唐草文 有蓋 小壺
 Celadon Jar with a lid, inlaid chrysanthemum vine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총 높이 6.4 입지름 3.0 굽지름 4.1 전남 고흥
 국립광주박물관



뚜껑과 몸체 전면에 흑백상감기법의 무늬가 정교하게 시문된 작은 항아리이다. 뚜껑의 작은 연봉형蓮峯形 손잡이에는 백토를 발랐으며, 손잡이를 중심으로 국화를 한 송이 상감하였다. 나머지 공간은 별모양으로 구획한 다음 각 면에 국화를 상감하였다. 몸체의 상단에는 국화넝쿨무늬를, 하단에는 상하 뇌문으로 문양대를 설정한 후 연꽃 잎무늬를 상감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精選되었고, 유층釉層도 두꺼우며 광택이 있다. 굽은 안바닥만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모래빛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뚜껑의 접지면에도 모래빛을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35
국화무늬 합 靑磁 象嵌 菊花文 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13세기 높이 3.6 입지름 7.3 굽지름 9.0 전남 고흥
국립광주박물관





공반 출토된 국화냉쿨무늬 항아리와 짝을 이루는 합으로 무늬 구성이 유사하다. 뚜껑 상면 가장자리를 네 개의 반원(半圓)으로 구획한 후 반원 안에는 국화 한 송이씩 상감하였으며, 중앙은 연주(聯珠)무늬로 채웠다. 구연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부분에는 항아리에서와 같은 연꽃잎무늬를 상감하였고, 뚜껑의 구연과 몸체의 구연에는 백상감으로 뇌문(雷文)을 시문하였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었으나 유약이 덜 녹아서 뚜껑의 윗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황갈색을 띠고 있다. 뚜껑과 몸체가 맞물리는 부분은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모래빛음을 받쳐 구웠으며, 몸체 바닥 면에는 세 개의 규석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36

연꽃·버드나무무늬 매병 青磁 象嵌 柳鶴·蓮蝶文 梅瓶

Celadon Bottle, *Maebyeong* with inlaid willow, crane, lotus, and butterfly design

고려시대 14세기 현재높이 25.8 굵지름 9.5 전남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1976년에 전남 광주시 동운동 산에서 출토된 청자매병이다. 고려시대 후기의 매병 형태로 크기가 작다. 구연부가 결손缺損되었으며, 둥근 어깨에서 몸체 저부로 갈수록 점차 잘록해지고 다시 밖으로 퍼지면서 바닥에 이르는 S자 형태이다. 어깨와 몸체 저부에는 연꽃잎무늬가 각각 흑백상감과 백상감 기법으로 시문되었으며, 몸체 중심의 주 무늬로는 버드나무와 학, 연꽃과 나비가 절반정도씩 면을 차지하여 상감되어 있다. 특히 긴 목을 뒤로 꺾고 있는 학의 유연한 몸, 학의 머리 뒤쪽으로 나 있는 깃털의 모습, 눈동자의 표현 등이 매우 이채롭다. 또한 반대 면에 연꽃사이를 날고 있는 세 마리의 나비는 날개를 더듬이와 날개까지 백상감으로만 표현하여 유약은 투명도가 높은 회청색이고, 굽 안바닥에는 빗음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논고 論考

고려 릉陵 출토 청자의 연구

한성욱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남진주

호남지역의 고려분묘 출토 청자 연구

김병수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 군에 대한 조사와 향후 전망

차순철

도판목록 圖版目錄

高麗陵出土靑瓷의 研究

韓盛旭 | 松廣寺聖寶博物館

- I 머리말
- II 陵出土靑瓷의 現況
- III 陵出土靑瓷의 性格
- IV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시간의 長短은 있으나 반드시 죽음의 세계에 이른다. 사후 세계를 위한 葬法은 지역과 종교,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매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경우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용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장품을 함께 매장한다.

따라서 생전 가장 아끼던 물건과 地神에게 자신이 묻힌 자리를 사고 하늘까지 가기 위한 화폐, 일상 생활용기인 대접과 접시가 기본적으로 매장된다. 이외에 병 또는 주자 등이 있으며, 청동기와 철기 등도 부장되는데 신분과 재력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양질의 고급청자로 모든 것을 갖춘 유형, 대접과 접시 등 소형 기종은 양질청자를 사용하고 병과 주자 등 대형 기종은 조질청자로 갖춘 유형, 대접과 접시는 조질청자를 사용하고, 병과 주자 등은 도기로 갖춘 유형, 조질청자로 모든 것을 갖춘 유형, 발과 병 등을 필요에 따라 금속으로 부장한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무덤의 규모에 축조 재료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려는 부장품뿐만 아니라 신분에 의해 무덤의 규모와 봉분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어 왕실의 무덤은 대체로 일정한 양식이 있다.¹⁾ 왕과 왕비의 무덤인 능은 대부분 편천정의 앞트기식 돌방무덤(橫口式石室墳)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입구는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문기둥과 문지방을 설치하고 있다. 돌방 중앙에 棺臺를 설치하고 목관을 놓는데 주변에 벽돌을 깔기도 한다. 천정은 대형 장대석으로 덮고 있으며, 네벽과 천정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천정 상부에는 8~12매의 보호석을 갖춘 봉토를 만들고 보호석 외곽은 다시 난간을 둘러고 그 사이에 石獸를 배치한다. 그리고 능 전면에는 제례공간인 丁字閣을 두고 있다.

이런 구조는 고구려 석실분을 계승한 양식으로 도굴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능은 대부분 도굴된 상태에서 조사되어 출토유물이 매우 빈약하다. 도굴에 의해 정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능에 부장된 유물은 당대 최고품으로 매장

1) 『高麗史』 제64권, 志 제39, 刑罰 2, 禁令, 景宗 元年(976) 2月條.

풍습 뿐만 아니라 심미안과 문화상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능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무덤 주인공의 생활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고려 왕실의 생활을 유추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매납시기가 정확하며 재질적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 청자의 변천을 비롯한 도자사와 미의식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고려청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조형이 변화하고 있어 이의 연구는 고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능은 대부분 개성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日政期에 출토된 유물들도 성격규명이 미흡하여 심층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江華에 소재한 熙宗 碩陵과 元德太后 坤陵, 順敬太后 嘉陵 등이 발굴조사되면서 연구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고려궁성(滿月臺)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실시되면서 그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자를 중심으로 도자 현황을 살펴보고³⁾ 문헌 자료 등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개성에 있거나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완벽한 성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II 陵 出土 靑瓷의 現況

1. 元昌王后 溫鞋陵⁴⁾

온혜릉은 개성시 송악동 송악산에 있는 태조의 할아버지 懿祖의 비인 원창왕후의 능으로 태조 2년(919) 조상들을 추봉하면서 축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⁵⁾ 출토유물은 棺槨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던 副葬品臺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 동쪽 부장품대 주변에서는 청자발과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자병, 청동고리 등이 출토되었으며, 서쪽 부장품대 주변에서는 금동장식품과 금동장식띠, 관못 등이 출토되었는데 도굴로 심하게 훼손되어 그 양은 많지 않다.

청자는 동쪽 부장품대 주변에서 발 2점, 대접 1점, 접시 4점, 병 1점 등 8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순청자이다. 발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구연이 외반된 유형인데, 1점은 몸체와 구연을 화형으로 성형하였다. 비슷한 크기로 높이 8.9~9.0cm, 입지름 21.2cm, 굽지름 8.8cm이다. 대접은 측면의 경우 사선을 이루며 구연은 살짝 외반되었다. 높이 7.0cm, 입지름 19.6cm, 굽지름 8.0cm이다. 접시는 구연과 몸체를 모두 꽃모양으로 성형한 유형(2점)과 구연만 꽃모양으로 성형한 유형(1점), 내측면에만 꽃모양으로 성형한 유형(1점)으로 구분된다.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굽이 없는 평저로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외반한다. 크기는 높이 3.1~3.4cm, 입지름 12.8~14.4cm, 굽지름 5.6~6.4cm이다. 병은 구연과 몸체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온혜릉 출토 청자는 대부분의 고려 능에서 출토된 청자에 비해 수량이 많은 편으로 고려 초기 청자의 성격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도면과 사진 등 상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개성 고려궁성 유적 발굴조사 결과보고』(유인물)

3) 睿宗의 裕陵(1122년 축조)과 忠定왕의 聰陵(1351년 축조)은 출토품에 도자가 없어 제외하였다.

4) 김인철, 2003 『온혜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7~35쪽.

5) 『高麗史』 제1권, 世家 제1, 太祖 1, 己卯 2년(919) 春正月 辛巳條

2. 太祖 顯陵⁶⁾

현릉은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만수산에 있는 태조와 그의 비 神惠王后的 능으로 943년 축조하였다.⁷⁾ 그러나 거란과 몽고를 비롯한 외침과 도굴 등으로 여러번 遷葬과 還葬을 거듭하고 있다.⁸⁾ 현릉 출토유물은 금동좌상과 옥띠 장신구, 과대를 비롯한 금동장신구, 놋쇠주자, 자물쇠, 관못, 새 모양 기와, 청자상감국화문잔 등이 무덤 내부와 봉분, 봉분에서 북쪽으로 5m 떨어진 구덩이에서 출토되었는데 도굴로 인해 그 양은 많지 않다.

청자는 받침과 조합을 이루는 청자상감국화문잔 1점이 있는데 받침은 결실되었다. 굽은八字形을 이루며 몸체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꽃모양으로 성형하였으며, 문양은 외면에만 시문하였다. 주문양은 동체의 각花瓣에 줄기와 잎은 흑색이며 꽃송이는 백색인 두 송이의 흑백상감국화문을 배치하였다. 구연부는 線文帶를 둘러 후 사선형의 唐草文帶를 상감하였다. 높이 6.5cm, 입지름 7.2cm, 굽지름 3.8cm, 굽높이 1.2cm이다. 이 잔은 상감문양이 전면에 시문되었으며, 국화무늬의 양식으로 보아 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의 작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장품이라면 대몽항쟁으로 강화에 옮겨진 현릉을 1276년 재건하면서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그러나 유물의 정확한 출토 위치와 상세한 설명이 없어 후대의 부장품인지 제례에 의한 폐기품인지 정확하지 않다.

3. 定宗 安陵¹⁰⁾

안릉은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룡수산에 있는 제3대 정종과 그의 비 文恭王后的 능이다. 장례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고려초기는 대부분 26일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東史綱目』 기록으로 보아 돌아가신 해인 949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 출토유물은 금동자물쇠와 금동장신구, 관못과 청자발(1점), 청자대접(1점), 청자접시(4점), 청자잔받침(1점), 청자주자뚜껑(1점)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발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구연은 외반되었다. 구연과 몸체를 5花形으로 성형하였다. 청자대접 역시 구연과 몸체를 5화형으로 성형하였는데 발에 비해 크기가 작다. 청자접시는 5화형(3점)과 10화형(1점)이 있는데 10화형이 조금 작은 편이다. 청자잔받침은



그림 1 안릉 출토 청자(발, 대접, 접시, 주자뚜껑)

6) 김인철, 2003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5~26쪽.

7) 『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太祖 2, 癸卯 26년(943) 5월 丙午條 『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惠宗, 癸卯 即位年(943) 6월 壬申條 『高麗史節要』 제1권, 太祖神聖大王 癸卯 26년(943) 6월 壬申條

8) 『高麗史』 제4권, 世家 제4, 顯宗 1, 丙辰 7년(1016) 春正月 壬申條 『高麗史』 제4권, 世家 제4, 顯宗 1, 丁巳 8년(1017) 冬10월 壬申條 『高麗史節要』 제3권, 顯宗元文大王 己未 10년(1019) 冬十一月條 『東史綱目』 제6하, 庚戌年 顯宗元文王 元年(1010) 十二月條 『高麗史』 제8권, 世家 제8, 文宗 2, 己亥 13년(1059) 5월 乙未條 『高麗史』 제22권, 世家 제22, 高宗 1, 丁丑 4년(1217) 3월 丙戌條 『高麗史』 제25권, 世家 제25, 元宗 1, 辛酉 2년(1261) 9월 甲申條 『高麗史』 제28권, 世家 제28, 忠烈王 1, 丙子 2년(1276) 9월 甲辰條

9) 『高麗史』 제28권, 世家 제28, 忠烈王 1, 丙子 2년(1276) 9월 甲辰條

10) ①김인철, 2003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5~26쪽.

②김중혁, 1986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 32~36쪽.

③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20·24·25·41·42·91쪽.

11) ①『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靖宗, 己酉 4년(949) 3월 丙辰條 『東史綱目』 제6상, 己酉年 靖宗 4년(949)條 『高麗史』 제88권, 列傳 제1, 后妃 1, 文恭王后 朴氏條

②계승무, 2006 『고려시기의 장례풍습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140, 사회과학출판사, 31쪽.

盞座를 전 보다 깊게 성형하였으며 전의 가장자리를 도톰하게 마무리하였다. 굽은 팔자형을 이룬다. 주자뚜껑은 상부에 보주형의 손잡이가 있으며 중간부분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하부는 수직으로 성형하였다. 이와 유사한 뚜껑은太祖顯陵에서 출토된 늦쇠주자에서도 확인된다.¹²⁾

안릉 출토 청자는 기벽이 얇고 유의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정교하고 예리하게 성형한 매우 양질의 청자이다. 또한 고려초기 청자의 생산 문제 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 청자는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에서 수입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흥 방산도와 봉천 원산리 등에서도 비슷한 청자가 확인되고 있어 고려에서 생산하여 부장하였을 가능성도 많다.¹³⁾ 그리고 이들 출토품은 안릉이 축조된 이후 文恭王后가 합장되면서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¹⁴⁾

4. 景宗 榮陵¹⁵⁾

영릉은 개성시 관문군 관문읍 봉동지구의 진봉산에 있는 제5대 경종의 능으로 981년 축조하였다.¹⁶⁾ 도굴로 인해 출토유물은 많지 않으며, 출토품 가운데 청자는 4점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2점은 상감청자 구연부로 1개체분으로 판단되는데, 문양은 백상감으로 시문한 구연부의 3줄 선문대와 주문양인 운문이 일부 확인된다. 2점은 자세한 설명과 굽 사진이 없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상감청자는 문양이 간략하고 반복적이며 기벽이 두터운 특징을 보이기도 있다. 이런 유형은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에서 많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14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따라서 상감청자는 무덤 축조 이후에 실시한 제례의 산물로 판단된다.

5. 文宗 景陵¹⁸⁾

경릉은 개성시 관문군 선적리 佛日寺 남쪽 산기슭에 있는 제11대 문종의 능으로 1083년 축조하였으며¹⁹⁾ 이후 일부 보수되었다.²⁰⁾ 도굴로 인해 출토유물은 많지 않으며, 출토품 가운데 청자 3점과 백자 3점이 알려져 있다. 청자는 3점이나 2개체분으로 판단되며 상감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청자상감국화문접시는 구연부와 저부에 백상감선문대를 돌린 후 그 사이에 흑백상감의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유형이다.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는 각면을 백상감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두 송이의 흑백상감국화문을 시문하였다. 이들 상감청자는 문양 구성과 유색으로 보아 干支銘象嵌靑瓷가 제작되던 14세기 전반 제작품으로 추정된다.²¹⁾ 따라서 이들 상감청자는 무덤 축조 이후에 실시한 제례의 산물로 판단된다. 백자는 병편으로 추정되며 들대선이 있으나 뚜렷한 문양이 없다. 또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6. 仁宗 長陵²²⁾

장릉은 장단군 장도면에 있는 제17대 인종의 능으로 1146년 축조되었다.²³⁾ 출토유물은 능이 도굴 당한 후 수습한 것으로 인종의 諡冊과 함께 청자대접과 청자접시, 청자합, 청자과형병, 靑瓷方形盥 등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전성기의 순청자이다. 청자양각연판문대

12) 김민철, 2003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2~23쪽.

13)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2~44쪽.

14) 『高麗史』 제88권, 列傳 제1, 后妃 1, 文恭王后 朴氏條 『東史綱目』 제6상, 己酉年 端宗 4년(949)條

1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21·22쪽.

16) 『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景宗, 辛巳 6년(981) 秋7월 丙午條 『東史綱目』 제6상, 辛巳年 景宗 6년(981) 7月條

17)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2~44쪽.

18) 『高麗史』 제88권, 列傳 제1, 后妃 1, 文恭王后 朴氏條 『東史綱目』 제6상, 己酉年 端宗 4년(949)條

1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21·22쪽.

20) 『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景宗, 辛巳 6년(981) 秋7월 丙午條 『東史綱目』 제6상, 辛巳年 景宗 6년(981) 7月條

21) 한성옥 외, 2003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21·22·251쪽.

23) 『高麗史』 제9권, 世家 제9, 文宗 3, 癸亥 37년(1083) 秋7월 辛酉條 『高麗史』 제9권, 世家 제9, 順宗, 癸亥 即位年 8월 甲申條

24) 『高麗史』 제10권, 世家 제10, 宣宗, 壬申 9년(1092) 6월 庚申條

25) ①韓盛旭, 2002 『高麗後期干支銘象嵌靑瓷の研究』, 『高麗美術館研究紀要』 3, 高麗美術館研究所, 31~60쪽.

②海剛陶磁美術館, 1991 『高麗時代後期干支銘象嵌靑磁』

26) ①小學館, 1978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9~13·145쪽.

②정양모, 1991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102·103쪽

27) 『高麗史』 제17권, 世家 제17, 仁宗 3, 丙寅 24년(1146) 2월 丁卯條 『高麗史』 제17권, 世家 제17, 毅宗 1, 丙寅 即位年(1146) 3월 甲申條

접은 외측면에 연판문을 시문하고 있다. 청자접시는 높이가 낮고 구연이 직립한 유형으로 유색이 매우 뛰어나다. 청자화형접시는 구연부와 몸체부를 꽃모양으로 성형하였으며 높이가 낮다. 또한 청자음각초화문사각접시가 있는데 내저면과 내측면에 초화문을 시문하였으며 전에는 당초문대를 들렸다. 청자합은 화형으로 성형한 것과 원통형으로 성형한 유형이 있다. 청자과형병(국보 제94호)은 몸체부에 골을 주어 참외모양으로 성형한 조형성이 매우 뛰어난 최고급의 양질청자이다. 장릉 출토품 청자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유물인 방형대는 모서리의 각을 죽인 후 꽃모양으로 성형하였다. 상하는 단을 주어 그릇을 쉽게 포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면 중앙부를 낮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그릇은 중국의 경우 방형뿐만 아니라 원형으로도 제작되며 금속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양구나 茶道具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어²⁴⁾ 떡이나 과일 등 고체류의 茶菓容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릉 출토 청자는 굽바닥에 규석을 받친 후 갑발을 씌워 번조하고 있으며, 유색과 기형 등이 매우 뛰어난 최고급 양질청자로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 翡色靑瓷을 대표하는 청자로 부족함이 없다. 장릉 출토 청자는 도굴 후 수습하여 자료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확한 소개가 없어 그 성격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 청자는 강진 사당리에서 비슷한 유형들이 출토되고 있어²⁵⁾ 강진에서 생산 공납되어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明宗 智陵²⁶⁾

지릉은 장풍군 지릉동(장단군 장도면 두매리)에 있는 제19대 명종의 능으로 1202년 축조하였으나²⁷⁾ 이후 1255년 몽고병의 파괴로 수축하였다.²⁸⁾ 전쟁시 왕릉의 파괴는 내부의 부장품을 전리품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출토유물은 1202년보다는 1255년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한편 지릉은 당시 무인정권의 실세인 최충헌의 주장으로 정상적인 王禮를 실시하지 못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²⁹⁾ 지릉에서는 청자음각모란문타호와 청자상감여지문대접, 청자양각운학문대접, 청자양각모란문화형접시, 청자음각연판문완, 청자소문접시, 청자양각문접시,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청자상감국화문접시, 청자상감화지문팔각접시 등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이들 청자들은 부분적으로 좌우대칭의 비례감을 잃고 있으나 기벽이 얇고 날렵한 기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는 일부 녹색조가 짙어지고 탁한 색을 띠고 있으나 翡色의 여운이 남아 있다. 문양구성은 간



그림 3 지릉 출토청자

략하게 도식화되었으나 전성기 양식을 따르고 있다. 굽은 매우 단정하게 성형하였으며 굽바닥에 규석을 받쳐 全面施釉 후 번조하였다.

지릉 출토 청자는 1271년 하한의 진도 용장성·완도 범화사 출토품과 1279년 하한인 제주 범화사 「至元六年己巳始重柵十六年己卯畢」銘瓦 퇴적층 출토품과 비교하면 보다 전성기 비색청자에 가깝지만 기형과 문양,



그림 2 장릉 출토 청자

24) 장남원, 2006 『고려증거 청자 연구』, 해안, 226~227쪽.

25) ①小學館, 1978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9~13쪽.

②조선관요박물관, 2005 『청자의 색형』, 421쪽.

26) ①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501~517쪽.

②김인철, 2003 『지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56~61쪽.

③海剛陶磁美術館, 1991 『高麗時代 後期干支銘 象嵌靑磁』, 9~40쪽.

27) 『高麗史』 제21권, 世家 제21, 神宗, 壬戌 5년(1202) 11월 戊午條; 『高麗史』 제21권, 世家 제21, 神宗, 壬戌 5년(1202) 閏2월 壬寅條

28) 『高麗史』 제24권, 世家 제24, 高宗 3, 乙卯 42년(1255) 3월 己未條.

29) 『高麗史』 제64권, 志 제18, 禮 6, 凶禮, 國恤, 神宗 5년 閏12월 壬寅條.

유색 등 제작수법이 매우 비슷하여 1202년 매납품보다는 이들과 가까운 시기인 1255년 수축시의 매납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자상감여지문대접은 완도 법화사 출토 청자상감쌍어국화모란문대접·제주 법화사 출토 청자상감여지문대접과 문양·유색 등이 매우 유사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³⁰⁾

8. 神宗 陽陵³¹⁾

양릉은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양릉골에 있는 제20대 신종의 능으로 1204년 축조하였다.³²⁾ 출토유물은 금속품과 석제품 등이 있으니 도굴로 인해 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청자상감모란문대접과 청자상감운학문대접, 청자상감국화문대접, 청자상감화문접시, 청자접시, 백자접시, 청자상감국화문합뚜껑 등이 출토되었다.

모란문대접은 구연부 너문대와 등간격의 모란문만을 단아하면서 사실적으로 시문하고 있다. 그러나 운학문대접은 全面에 인화상감으로 문양을 시문하여 14세기대의 특징인 약화된 인화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유는 회청색과 청록색으로 용융상태가 좋다. 청자상감국화문합뚜껑은 중앙에 이중원권과 1송이 국화를 시문한 후 그 주변 4곳에 등간격으로 역시 국화를 배치하였다. 반듯하게 내려 간 구연부에는 백상감너문대를 시문하였다. 문양은 매우 사실적으로 시문하였는데, 1301년 순천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출토 합뚜껑과 주문양의 구성배치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묘광탑 출토품은 종속문양인 운학문이 全面에 꼭차게 시문된 반면 양릉 출토품은 종속문양이 생략되었다.

양릉 출토 청자는 13세기대에서 14세기대로 변화하는 청자의 변천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청자상감모란문대접은 12세기 전반의 단아하면서도 간략한 상감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화문합은 사실적이며 단순한 문양구성이지만 유색과 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전면에 복잡하게 문양을 시문한 송광사 묘광탑 출토 합 의 전단계인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학문대접은 14세기대의 특징인 퇴화된 인화문을 전면에 꼭차게 시문되고 있다. 이는 干支銘靑釉中大濼에 보이는 운학문과³³⁾ 14세기 말의 특징을 보여주는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출토 대접 문양과도³⁴⁾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양릉 출토품은 시기 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축조시의 부장품과 축조 후 제례의 산물이 함께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9. 熙宗 碩陵³⁵⁾

석릉(사적 제369호)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에 위치한 제21대 희종의 능으로 1237년 축조하였다.³⁶⁾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어 부장품의 전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석릉 출토 청자의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잔과 합, 병, 호, 항, 잔받침 등이 있다. 이들은 갑발을 사용한 양질의 갑번품이 대부분이며 단독 번조품이 일부 있다. 문양은 병과 호, 잔받침 등 대형기종에서만 상감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접과 접시, 잔 등의 소형기종은 양각기법과 퇴화기법을 이용하여 시문하였다. 특히 소형기종은 대부분 양질청자에 많이 사용하는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하였다. 즉, 순청자가 중심을 이루며 상감청자와 퇴화청자가 일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받침은 규석 받침이 대부분이나 매병 등 대형기종은 거친 내화토 비침이 확인되며, 접시

30) 한성욱,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57~99쪽.

31) ① 김인철, 2003 『양릉 발굴보고』 『고려 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62~74쪽.

② 김중현, 1986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 32~36쪽.

③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면 3, 21·23·219쪽.

32) 『高麗史』 제21권, 世家 제21, 神宗, 甲子 7년(1204) 春正月 丁丑條 『高麗史』 제21권, 世家 제21, 熙宗, 甲子 即位年(1204) 2월 庚申條

33) 해강도지미술관, 1991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15·23·28쪽.

34) 한성욱 외, 1995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8쪽.

35) ①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江華 碩陵』 ② 문화재청, 2007 『발굴에서 전시까지』 40~43쪽.

③ 韓盛旭, 2003 『碩陵 出土 靑瓷의 性格』 『江華 碩陵』 國立文化財研究所, 147~164쪽.

36) 『高麗史』 제23권, 世家 제23, 高宗 2, 丁酉 24년(1237) 秋8월 戊子條 『高麗史』 제23권, 世家 제23, 高宗 2, 丁酉 24년(1237) 冬 10월 丁酉條



그림 4 석릉 출토 청자

등 소형기종은 규석 가루를 사용하였다. 이들 석릉 출토 청자는 12세기대 전성기 청자의 여운을 간직한 청자가 대부분으로 비색의 전통이 13세기 전반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석릉 출토품 가운데 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靑瓷陽印刻菊唐草文銀口大瀝이다. 이 대접의 굽안바닥에는 지름 0.8cm의 음각「O」문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전라남도 강

진군 대구면 사당리 8·23·27호 도요지 등 한정된 요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³⁷⁾

이처럼 굽안바닥에 음각「O」문이 있는 예는 1232년 하한의 파주 해음원 출토 청자양각 화문접시와 일본 鎌倉의 若宮大路 小町 1丁目 106番 1他地点 유적의 1226~1250년 층위에서 출토된 청자음각연관문병에서도 확인되고 있어³⁸⁾ 그 제작시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1239년 축조된 곤릉에서도 「O」문만 없을뿐 문양기법이 유사한 청자상감양인각모란연화당초문대접이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들 「O」문청자를 대부분 12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들 청자의 생산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와 진서면 진서리 도요지에서도 석릉 출토품과 유사한 청자들이 제작되고 있어³⁹⁾ 앞으로 더욱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10. 元德太后 坤陵⁴⁰⁾

곤릉(사적 제371호)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에 위치한 제22대 강종 비인 원덕태후의 능으로 1239년 축조하였다.⁴¹⁾ 출토품은 도굴로 인해 매우 소량 출토되었는데, 석실내부에서는 철제품과 동전, 금동장식품, 도기편, 귀목문와당과 평와편이 등이 출토되었다. 제례공간인 丁字閣에서는 다량의 기와와 벽돌(塼) 등의 瓦塼類와 定置된 상태의 도기병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는 석실 폐쇄석 앞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청자삼족상형향로의 동체와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뚜껑, 청자상감역상감당초문병 뚜껑, 화형접시, 청자상감양인각모란연화

당초문대접 등이 있다. 특히 삼족향로는 국보 제60호 청자사자향로(국립중앙박물관 소장)⁴²⁾와 국보 제65호 청자기린향로(간송미술관 소장)⁴³⁾ 보물 제1027호 청자구룡향로(호암미술관 소장)⁴⁴⁾ 등과 유사하다. 향로의 다리는 사자형상을 하고 있는데, 뚜껑도 역시 동물의 형상을 하고 그 입에서 향이 나오도록 제작하



그림 5 곤릉 출토 청자

37) ①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 -명문·부호 특별전』, 11~15쪽.

② 최선일, 2000 『청자 굽바닥에 새긴 표식의 실체와 의미 -강진요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 -명문·부호 특별전』 강진청자자료박물관, 110~117쪽.

③ 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38)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若宮大路周邊遺跡群-小町-丁目106番1他地点 第1次-』

39) ①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4 『부안 유천·진서리 청자요지 조사보고서』

②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부안 진서리 청자요지-제18호 요지발굴』

③원광대학교박물관, 2001 『부안 유천리 7구역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④한정화, 2004 『부안 유천리출토 고려청자의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①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江華 高麗 王陵(嘉陵?坤陵)發掘調査-指導委員會 및 現場說明會 資料-』

② 문화재청, 2007 『발굴에서 전시까지』, 48~49쪽.

41) 『高麗史』 제88권, 列傳 제1, 后妃 1, 元德太后 柳氏條: 『東史綱目』 제10하, 己亥年 高宗 26년(1239) 5月條1

42) 국립중앙박물관, 1989 『고려청자명품특별전』, 40·210쪽.

43) 간송미술관, 1986 『濶松文華』 31, 도예Ⅳ 청자, 한국민족미술연구소, 5쪽.

44) 국립중앙박물관, 1989 『고려청자명품특별전』, 74·216쪽.

였다.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뚜껍은 국보 제254호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이헌 소장) 뚜껍과 비슷한 유형으로 13세기를 중심시기로 하는 일본 鎌倉地域에서도 다량 출토되고 있어⁴⁵⁾ 상호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청자상감양인각모란연화당초문대접은 1237년 축조의 석릉에서 출토된 靑瓷陽印刻菊唐草文銀口大椀과 문양기법이 유사하여 이들이 동일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곤룡 출토 청자는 12세기대 전성기 청자의 여운을 간직한 청자가 대부분으로 靑色の 전통이 13세기 전반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곤룡 출토 청자는 무덤을 축조하면서 실시된 祭儀 과정에 석실 폐쇄석 앞에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11. 順敬太后 嘉陵⁴⁶⁾

가릉(사적 제370호)은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2-2번지에 위치한 제24대 원종 비인 순경태후의 능으로 1237년(고종 23) 축조하였다.⁴⁷⁾ 가릉 출토품은 중국 宋代의 元豐通寶를 비롯하여 새모양 옥장식품, 호박제 옥, 은제고리 장식품, 기와, 벽돌 등이 있으나 도굴로 인해 그 수량은 매우 적다. 가릉에서는 석실 내부에서 다량의 도기편이 출토되어 왕실 사용 도기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확인된 강화 선두리 도기요지 출토품과의⁴⁸⁾ 비교를 통해 강화지역 도기의 생산과 유통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청자는 능 주변에서 매우 작은 편이 소량 출토되어 성격이 불분명하다.

12. 莊穆王后 高陵

고릉은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있는 제25대 충렬왕의 비인 장목왕후의 능으로 1297년 축조하였다.⁵⁰⁾ 그러나 불길한 장소라 하여 1308년 신축하고 있으며, 1332년은 도굴로 인해 수축하고 있다.⁵²⁾ 고릉 출토품은 동전을 비롯한 금속제품과 석제품 등이 있으나 여러 차례 도굴되어 유물이 매우 빈약하다.

청자는 순청자대접과 상감청자대접 각 1점이 출토되었다. 청자상감국화문대접의 경우 내측은 구연부에 靑文과 連珠文帶를 돌리고 있다. 외면 역시 구연부는 뇌문과 연주문대를 돌린 후 측면에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고 있다. 그림과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상감청자의 경우 두께가 두텁고 단순한 문양이 반복 시문되고 있어 1332년 도굴 후 수축하면서⁵³⁾ 부장하였거나 축조 후의 제례에 의한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13. 忠穆王 明陵⁵⁴⁾

명릉은 개성시 개풍군 연릉리에 있는 제29대 충목왕의 능으로 1348년 薨逝하여 1349년 축조하였다.⁵⁵⁾ 후대의 도굴로 유물은 청자상감운학문대접편과 청자연주문접시, 청자국화문접시 등 소량 출토되었다. 문양은全面에 팽창하게 시문하거나 간략하게 생략한 문양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한 극히 퇴화된 양식이다. 유색 또한 탁한 청녹색과 황갈색을 띠고 있어 干支銘象嵌靑瓷와 함께 말기 상감청자로 이행되는 변화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⁵⁶⁾ 자세한 설명과 사진이 없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45) ①根津美術館, 1996 『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

②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集』 陶磁編, 平凡社.

46) ①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發掘調査—指導委員會 및 現場説明會 資料—』

②문화재청, 2007 『발굴에서 전시까지』, 46~47쪽.

47) 『高麗史』, 제88권, 列傳 제1, 后妃 1, 順敬太后 金氏條 李奎報 『東宮妃主哀册文』 『東文選』, 제28권.

48) ①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4 『강화 선두리 고려 도기요지 발굴조사보고서』

②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 보고서』

49) ①김영진, 1995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129·140~141쪽.

②김인철, 2003 『고릉 발굴보고』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75~86쪽.

50) 『高麗史』, 제31권, 世家 제31, 忠烈王 4, 丁酉 23년(1297) 5월 壬午條 『高麗史』, 제31권, 世家 제31, 忠烈王 4, 丁酉 23년(1297) 8월 己未條

51) 『高麗史』, 제33권, 世家 제33, 忠宣王 1, 忠烈王 34년(1308) 10월 己丑條1 『高麗史』, 제36권, 世家 제36, 忠惠王, 壬申 2년(1332) 2월 丁未條

52) 『高麗史』, 제36권, 世家 제36, 忠惠王, 壬申 2년(1332) 2월 丁未條

53) 『高麗史』, 제36권, 世家 제36, 忠惠王, 壬申 2년(1332) 2월 丁未條

5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21·23쪽.

55) 『高麗史』, 제37권, 世家 제37, 忠穆王, 戊子 4년(1348), 12월 丁卯條 『高麗史節要』, 제26권, 忠定王, 己丑 元年(1349) 3월 丁酉條

56) ①韓盛旭, 2002 『高麗後期干支銘象嵌靑瓷의 研究』 『高麗美術館研究紀要』, 3, 高麗美術館研究所, 31~60쪽.

②해강도자미술관, 1991 『고려시대후기 간지명 상감청자』

14. 仁德太后 正陵⁵⁷⁾

정릉은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봉명산 기슭의 무선봉에 있는 제31대 공민왕의 비인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仁德恭明慈睿宣安徽懿魯國大長公主)의 능으로 1365년 축조하였다.⁵⁸⁾ 정릉과 관련한 청자는 발굴품보다 陵號를 새긴 「正陵」銘象嵌靑瓷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정릉」명상감청자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공주의 薨逝時期인 1365년부터 공민왕의 薨逝時期인 137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⁵⁹⁾ 공주의 사후와 관련해서는 정릉뿐만 아니라 影殿인 仁熙殿과 願刹인 雲岩寺 등이 있다.⁶⁰⁾ 따라서 「정릉」명상감청자는 이들 3곳에서 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정릉」명상감청자는 이들 3곳 이외에도 江華 禪源寺와 羅州 錦城館, 羅州 玉山里, 日本 大宰府 觀世音寺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출토지는 당시 문란했던 공부수취체제와 왜구창궐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정릉」명상감청자는 노국공주에 대한 공민왕의 특별한 배려가 깃든⁶¹⁾ 왕실용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태토와 유색, 기형, 문양 등이 매우 거칠어 청자 쇠퇴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릉」명상감청자는 모두 13점이며 기형은 내저원각식대접(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 등 5점)과 측면사선형접시(청자상감국화문접시 등 3점), 측면외반형접시(청자상감국화문접시), 화형접시(청자상감여의두문접시 3점), 통(청자상감연국화문통) 등 5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형은 「己巳」銘象嵌靑瓷(1329년) 이후의 둔중하면서 대형화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⁶²⁾ 그리고 대접의 內底圓刻徑(6.5~7.7cm)은 굽지름(6.1~6.7cm)보다 크게 제작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干支銘象嵌靑瓷부터 시작되어 「정릉」명상감청자에서 특히 크게 제작되고 있다.⁶³⁾ 태토는 잡물과 기포가 많아 거칠며, 유색은 모두 어두운 색조를 띠며 대부분 빙렬이 있다. 굽바닥 유는 대부분 닦아내었다.

굽 받침은 대부분 「壬午」銘象嵌靑瓷(1342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래받침(10점)을 사용하였으나, 접시에서 일부(3점) 태토비집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부분 도지미 위에 모래를 깔고 단독 번조하였으며, 태토비집을 사용한 접시는 대접 등 큰 기형의 최상에 놓고 포개 번조하여 내저면에 받침 흔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토비집은 『至正十一年』銘大濮(1351년)⁶⁴⁾ 이후 모래받침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흑토비집은 말기청자의 표식적 받침으로 강진 사당리 10호 도요지 일대에서만 확인된다.⁶⁵⁾ 그리고 번조시의 파열방지를 위해 굽안바닥을 다진 예가 일부 확인된다. 한편 대부분 내저면에 잡물이 묻어 있어 왕실용임에도 불구하고 갑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그림 6 「정릉」명 청자 유물

57) 한성옥, 2005 『고려후기 「正陵」銘象嵌靑瓷의 성격』 『동악미술사학』 6, 81~99쪽.

58) 『高麗史』 제41권, 世家 제41, 恭愍王 4, 乙巳 14년(1365) 2월 甲辰條 『高麗史』 제41권, 世家 제41, 恭愍王 4, 乙巳 14년(1365) 夏 4월 壬辰條

59) 공민왕 사후에도 정릉 축조와 관련된 供辦都監이 있었으나 「정릉」명청자가 계속 제작되었다면 공민왕의 능호인 「玄陵」銘靑瓷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공민왕 재위기간에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高麗史』 제77권, 志 제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供辦都監條)

60) 『高麗史』 제89권, 列傳 제2, 后妃 2, 魯國大長公主條: 魯國大長公主條: (恭愍王) 19년(1370) 置守陵戶 納土田城隍于雲岩寺 … 雲岩寺東麓號曰正陵 神御之所在城中者曰仁熙

61) 『高麗史』 제89권, 列傳 제2, 后妃 2, 魯國大長公主條: 又設 山所 靈齋法 威儀 喪烽 燧車 祭器 喪服 返魂 服玩 小造 棺槨 墓室 鋪陳 眞影等 十三色 各置別監 以供喪事. 令諸司設奠 賞其淵潔者. 於是爭務華侈 至有稱貸以辦者.

62) 韓盛旭, 2002 『高麗後期干支銘象嵌靑瓷の研究』 『高麗美術研究紀要』 3.

63) 이종민, 1992 『14세기 고려상감청자의 연구』 흥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20쪽.

64)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92 『高麗靑磁への誘い』 179쪽.

65) ①한성옥·김애경, 2003 『무안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의 연구』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②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알 수 있다.

문양은 구성이 단순하고 약화되었는데, 특히 화형접시는 외면문양을 생략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정릉」흑상감(9점)과 백상감(4점)이 확인되는데 왕실용임에도 대부분 필획이 단정하지 않다. 흑상감명문은 모두 필각하였는데, 대접의 경우 각각의 필체가 상이하다. 백상감명문은 필각과 인각으로 나누어진다. 백상감명문은 「己巳」銘象嵌靑瓷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壬午」銘象嵌靑瓷에서만 일부 확인되는 기법이다.

「정릉」명상감청자의 제작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4호와 사당리 117번지 일대 등 2곳이 확인되고 있으며, 제작자는 명문의 시문기법과 필획으로 보아 다양하게 확인된다. 즉, 복수의 제작지와 제작자가 확인되는데, 이는 다양한 공방을 의미할 수 있으나 제작기간(1365~1374년)의 장기화에 따른 시기차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릉」명상감청자의 기종은 筒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적 기형으로 제례 역시 일반용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⁶⁾ 따라서 이례적 기종인 통의 정확한 역할과 용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III 陵出土靑瓷의性格

고려시대 왕과 왕비의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모두 능과 관련된 유물이지만, 목적과 시기에 따라 축조시의 부장품과 무덤 축조시의 祭儀品, 무덤 축조 층위에 포함된 유물, 추가장에 의한 후대의 부장품, 축조 이후 제례의 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의 능은 축조 후 왕후를 합장하기 위한 추가장이 실시되거나 거란과 몽고의 침입 등 외란에 의해 遷葬 후 再建되는 경우가 있으며, 풍수에 의한 신축과 盜掘 등으로 인한 修築 등이 있다. 또한 무덤 축조 이후에도 기일과 왕실의 필요에 의해 제의가 실시되면서 지속적으로 청자가 사용 폐기되고 있어 봉분 주변에서 부장품 이외의 청자가 출토되고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축조시기와 다른 시기의 청자가 출토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 상이한 시기의 청자는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그 성격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과 편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시대 능은 석실분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도굴에 쉽게 노출되어 부장품이 매우 빈약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왕이 검약을 강조하는 遺詔(유서)를 남기고 있어 원래부터 부장품이 간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빈약한 부장품은 이를 통한 실생활 재현에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 부장품과 제례용기는 대부분 일상 생활용기들로 대접과 접시가 중심을 이루는데, 특히 접시의 수량이 많다. 이외에 잔반침을 포함한 잔, 매병을 비롯한 병, 唾壺를 포함한 호, 주자, 향로, 통, 방형대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종류의 청자들이 함께 매납되었으나 도굴 등으로 부분적으로 출토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굴이 되지 않은 폐쇄석 앞부분에서 출토된 끈릉의 출토품으로 보아 뚜껑이 있는 병과 향로 등은 一體의 조합을 이루지 않고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어 매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능뿐만 아니라 일반 고려고분에서도 확인되는 매장품 습으로 대부분 조합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부장품 가운데 특징적인 유물은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方形壺와 인덕태후 정릉에서 사용된 筒이다. 방형대는 중국에서 원형 또는 금속기로도 제작되고 있으며 공양구나 다도구로 사용된다.

66) 한성옥, 2003 『석릉 출토 청자의 성격』 「김학 석릉」 국립문화재연구소.

따라서 떡과 과일 등 고체류를 놓던 茶菓容器로 추정된다. 인덕태후 정릉의 제례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靑瓷象嵌蓮菊花文筒은 종이 등 물건을 꽂아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능을 축조하거나 수축하면서 매납한 청자는 그 시기가 정확하여 청자의 변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회중 석릉과 원덕태후 곤릉 출토품은 12세기 전성기 청자가 13세기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려준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후 명종 지릉 출토품과 함께 고려 후기 청자의 성격 규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릉」명상감청자는 왕실용임에도 불구하고 태토와 유약, 기형, 문양, 번법 등 모든 면에서 질이 저하되고 있어 왕조의 쇠퇴를 청자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인종 장릉 출토품은 宋의 徐兢이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극찬한 翡色靑瓷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원창왕후 은혜릉과 정종 안릉 출토품은 고려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소개가 미흡하고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다. 특히 안릉은 축조 후에 문공왕후가 합장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高麗陵出土靑瓷現況

() 修築時期

번호	代數	廟號	陵號	築造時期	鉢	大椀	盤	椀	鉢	壺	壺托	盒	瓶	壺	唾壺	注子	香爐	筒	臺
1	追封	懿祖王妃	溫鞋陵	919	○		○	○					○						
2	1	太祖	顯陵	943 (1276)					○										
3	3	定宗	安陵	949	○	○		○		○				○					
4	5	景宗	榮陵	981		○		○											
5	11	文宗	景陵	1083				○					○						
6	17	仁宗	長陵	1146		○		○				○	○						
7	19	明宗	智陵	1197 (1255)		○	○	○							○				
8	20	神宗	陽陵	1204		○		○				○							
9	21	熙宗	碩陵	1237		○		○	○	○			○	○					
10	22	康宗王妃	坤陵	1239		○		○					○			○			
11	24	元宗王妃	嘉陵	1237															
12	25	忠烈王妃	高陵	1297 (1332)		○													
13	29	忠穆王	明陵	1349		○		○											
14	31	恭愍王妃	正陵	1365		○		○											○

IV 맺음말

사람이 죽은 후 사후 세계를 위한 葬法은 매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경우 일상 생활용 기인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부장품을 매납하고 있는데, 신분과 재력에 따라 그 질이 결

정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인 능에 부장된 유물은 당대 최고품으로 매장품뿐 아니라 심미안과 문화상, 생활상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매납시기가 정확하며 재질적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고려청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조형이 변화하고 있어 이의 연구는 고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고려시대 왕과 왕비의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모두 능과 관련된 유물이지만, 목적과 시기에 따라 축조시의 부장품과 祭儀品, 축조 층위에 포함된 유물, 추가장에 의한 부장품, 축조 이후 제례의 산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이한 성격의 청자는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그 성격을 밝힐 수 있다. 고려시대 능은 석실분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도굴에 쉽게 노출되어 부장품이 매우 빈약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왕이 검약을 강조하는 유서를 남기고 있어 원래부터 부장품이 간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능에서 출토되는 청자 부장품과 제례용기는 일상 생활용기인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잔, 병, 호, 주자, 향로, 통, 방형대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종류의 청자들이 함께 매납되었으나 도굴 등으로 부분적으로 출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병과 향로 등은 몸체와 뚜껑이 조합을 이루지 않고 분리된 후 매납되고 있는데 일반 고분에서도 확인되는 매장품이다.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方形臺는 떡과 과일 등 고체류를 놓던 茶菓容器로 추정되며, 靑瓷象嵌蓮菊花文筒은 종이 등 물건을 꽂아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능을 축조하거나 수축하면서 매납한 청자는 그 시기가 정확하여 청자의 변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려시대 능 출토 청자들은 초기청자(원창왕후 은혜릉과 정종 안릉)와 전성기 청자의 발전(인종 장릉)과 변화(희종 석릉과 원덕태후 곤릉, 명종 지릉), 후기 청자(인덕태후 정릉)의 쇠퇴 등을 보여 주고 있어 고려청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 하겠다.

고려시대 능과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개성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日政期에 수습된 자료들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명확한 자료 소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들 고분 출토 청자의 생활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이들 청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남진주 | 충북대학교

- I 머리말
- II 충청지역 고려 고분의 유형과 부장품
 - 1. 고분의 유형
 - 2. 부장품
- III 순서배열법을 통한 부장품의 편년과 조합
 - 1. 전기
 - 2. 중기
 - 3. 후기
- IV 부장품의 시대양식과 지역성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는 신라하대에 정치이념으로 부각된 유교와 불교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귀족사회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른 신분체제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공예 분야는 귀족들의 생활도구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佛具 등을 중심으로 돋보이는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생활도구로 사용되던 공예품의 일부는 그 사용자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매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고분에 매납된 유물은 일정시기에 사용되던 것으로 동일한 폐기시점을 갖기 때문에 한 시대양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고려시대 고분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고분출토품의 연구 대상은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류가 그 중심에 있고, 한 유구에서 동반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을 통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고려청자의 편년을 시도하였다.¹⁾ 청자의 편년은 고분의 시기와 구조의 변화, 피장자의 계층으로 확대되어 연구되었다.²⁾ 최근에는 고분출토 도자의 편년과 무덤의 양식뿐만 아니라 소비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도자의 생산과 수요의 형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³⁾

고려시대의 무덤은 문무양반의 직급에 따라 엄격히 규모를 규제한 기록⁴⁾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일정양식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일정양식은 전국적으로 유사점을 띠게 하는 모본과도 같은 역할을 했으리라 믿어진다. 고려고분은 전국에서 조사되었고, 각 지역의 매장양상은 유사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역색을 띠기도 한다. 충청지역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은 고려 전기에서 후기까지 긴 시간폭을 보이고, 출토유물의 종류도 도자기류·청동·철기 등 다양한 유물상을 볼 수 있다.

1) 嚴翼成,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一考察-와 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 용인문화원, 1998, pp.245-285; 남진주, 「尙州 靑里 고분 출토 청자 편년 연구」, 『美術史學研究』, 225-226, 韓國美術史學會, 2000, pp. 37-66; 朱榮民, 「高麗時代 墳墓 研究-陶器編年을 中心으로-」, 2004, 新羅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梁美玉,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연구」, 2005, 韓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玄文泓, 「高麗時代 古墳 出土 靑瓷研究」, 2005,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尙姬, 「高麗墳墓出土 綠靑磁의 編年研究-嶺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김병수, 「湖南地域의 高麗 墳墓 出土 靑瓷 研究」, 2007,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黃景祿, 「高麗時代 石槨墓 研究-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1,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朱榮民,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9-16世紀 墓域施設 墳墓를 中心으로-」, 『지역과 역사』, 17호, 2005, pp. 45-86; 高賢守, 「南韓地域 高麗古墳의 埋葬品 埋葬方式 研究」, 2004,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藪仁,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한국상고사학보』, 45, 2004, pp. 107-135.

3) 李鍾玟, 「高麗 墳墓 出土 陶磁 研究-소비양식의 관점에서-」, 『湖西史學』, 第46輯, 2007, pp. 1-34.

4) 『高麗史』, 卷 85 志 39 刑法 2 禁令條,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并一丈六尺, 三品七十步, 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 并三十步, 高不遇八尺」.

이 글에서는 그동안 도자기류를 중심으로 연구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속유물과의 조합관계를 동시에 보고자 한다. 따라서 대상이 된 유적은 청자가 출토되거나, 청자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동전 등의 부장으로 분명한 고려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포함하였다. 부장유물에 대한 상대편년과 동반유물의 상호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순서배열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충청지역 고분에 부장된 유물의 시대양식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충청지역만의 지역색을 찾고자 한다.

II 충청지역 고려 고분의 유형과 부장품

1. 고분의 유형

충청지역에서 조사된 고려 고분 유적은 大田 加午洞·宋村洞·伏龍洞, 公州 鳳岩里·金鶴洞, 保寧 九龍里, 夫餘 塩倉里, 舒川 楸洞里, 淸州 明岩洞·龍岩 金川洞·鳳鳴洞·山南洞, 淸原 馬山里, 忠州 丹月洞·虎岩洞, 丹陽 玄谷里, 鎭川 松斗里, 丹陽 玄谷里, 報恩 富壽里 등이 있다.

충청지역에서 조사된 고분의 유형은 석곽·토광·화장묘의 형태를 띤다. 석곽묘는 공주 봉암리, 충주 단월동, 단양 현곡리, 보은 부수리 유적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유적에서는 토광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고려시대 고분의 양식은 문무 양반의 경우 계급과 직급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가난한 평민이나 신분이 미천한 노비의 경우는 분묘조차도 쓰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은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분묘의 경우, 특히 유물이 동반되는 분묘는 적어도 하급관리나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평민층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라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⁵⁾

일반적으로 왕실이나 왕실 가족 등 최상위 계층의 경우 石室基를 사용하였고, 지역적으로도 수도인 개성과 강화도 일대에 분포하는 것은 그 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武人執權期를 거치면서 지배층의 무덤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가고 말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⁶⁾

그렇다면 석곽묘와 토광묘의 경우는 어떠할까? 무덤의 세부적인 축조형식은 이미 연구된 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⁷⁾ 석곽묘는 축조하는 공정을 생각해 볼 때 토광묘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왕실을 제외한 귀족이나 상위관료층은 石室이나 石槨墓, 하위관료층이나 土豪, 평민들은 토광묘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석곽을 좀 더 고급형식으로 파악하였다. 단월동 유적을 예로 들어 석곽묘에 부장된 탁잔이나 주자 등의 기종이 토광묘에 부장된 것보다 고급임을 근거로 석곽묘를 상위 집단의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다.⁸⁾

그러나 충청지역 전체로 확대해서 부장된 유물양상을 비교해 본다면 석곽묘와 토광묘의 위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모호하다. 무덤의 위상은 피장자의 위상과 비례할 것이고, 피장자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부장유물에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무덤에 공통으로 부장되는 발, 접시, 병보다는 특수기종에 있고, 부장품의 질적·양적 차이가 근거가 될 것이다. 충청지역에서 조사된 석곽묘의 경우 단양 현곡리

5) 李鍾政의 앞 글, p. 8.

6) 金龍善,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東亞研究』第17輯,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9, pp. 255-279.

7) 黃恩郁의 앞 글, 2001; 李繼仁의 앞 글, 2004, 梁美玉의 앞 글, 2005.

8) 梁美玉의 앞 글, 2005, p. 8.

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부분은 유물의 부장양이 많지 않고, 토광묘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도 우수한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산 자기를 비롯한 많은 양의 다양한 부장품이 매납되거나 특수기종으로 볼 수 있는 매병이 동반되는 무덤은 토광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덤의 축조방식이 곧 무덤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덤의 단양 현곡리와 충주 단월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석곽묘가 다른 토광묘에 비해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즉 고려 전기에 토광묘 보다 많은 수로 축조되던 석곽묘는 중기 이후 단양 현곡리나 단월동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광묘로 대체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충청지역에서의 석곽과 토광의 차이는 피장자 신분의 차이라기 보다는 시기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⁹⁾

충청지역 토광묘의 유형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은 굴광 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무덤바닥 네 모서리에 지름 15cm 정도의 작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요강을 파서 유물을 부장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유물 부장은 특별한 부장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청원 마산리에서는 벽감을 설치하고 유물을 부장하였다. 그동안 벽감은 고려말 이후 설치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발굴 예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화장묘는 고려시대가 불교를 숭상하던 시기였고 『高麗史』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에서 찾아지는 예는 극히 드물다. 충청지역에서는 충주 단월동에서 1기가 조사되었는데 장동호의 입구를 청자대접을 이용해서 막은 형태로 출토되었다.

2. 부장품

대부분의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충청지역도 청자와 도기를 포함한 자기류, 청동과 철기를 포함한 금속유물, 그 밖에 구슬, 빗, 먹 등이 있다. 충청지역 고분에 매납된 부장품 중 자기는 靑磁, 陶器, 白磁가 있다. 부장된 자기 대부분은 청자이고 아주 소수의 백자가 있다. 청자는 鉢¹⁰⁾과 樸匙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盤口瓶·油瓶·梅瓶을 포함하는 瓶 종류가 다음이고, 소수의 碗, 注子, 盞托, 盞, 缸이 동반된다. 도기는 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발, 뚜껑, 호, 장군, 향완 등도 확인된다. 금속유물의 대부분은 청동손가락이 차지하고, 청동발과 접시, 합, 젓가락, 가랑비녀, 동경, 가위, 印章, 刀子, 방울, 장신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따비, 가래날 등의 농공구가 출토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분 부장품은 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기명과 생활 도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장된 유물의 대부분은 조질 청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국내생산의 고급자거나 중국산 자기가 쓰이고 있어 당시의 소비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좀 더 세분하여 각각의 종류를 알아보고 분류하여 순서배열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자기류

(1) 완, 발 (그림 1)

충청지역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완은 단순한 조합을 보인다. 완의 대부분은 한국식해무리굽완이고, 좁은 내저원각이 있는 저부에서 기벽이 사면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외반

9) 이러한 견해는 주영민이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보여진다. 12세기에 접어들면 무덤의 내부 매장주체부가 석실, 석곽뿐만 아니라 토광도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朱榮民, 앞 글, 2004, p. 124).

10) 청자의 기종 분류에 있어서 대접과 발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같은 기종의 다른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 이종민이 의견에 동의해 대접을 포함해서 발로 분류하였다(李鍾旼의 앞 글, 2007, p. 11).

하는 형태도 볼 수 있다.

발은 많은 양이 출토되고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1形은 내저원각이 있는 저부에서 꼭면으로 올라가다가 구연 아래에서 한 번 꺾여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이다. 2形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면으로 올라가고 구연이 직립하는 형태로 구연단 아래에 음각선이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면에 압출양각문이 시문되기도 한다. 3形은 저부에서 꼭면으로 올라가고 구연단에서 약간 내반하는 형태로 내면 구연아래에 한 줄의 홈이 있기도 하다. 4形은 외면에 연판문이 있는 것인데 반양각으로 새긴 것, 음각으로 새긴 것을 모두 포함하고 연판은 2중으로 새겨지기도 하였다. 5形은 발 4形과 동일한 기형이나 외면에 연판문이 없는 것으로 내면에 음각문이 시문되기도 한다. 6形은 다른 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고 구연의 지름이 큰 것으로 무문과 상감문이 있는 예가 있다. 발에 시문된 무늬는 음각, 압출양각, 상감기법이 쓰였는데, 음각문은 한 줄의 음각선이 가장 많고 앵무문과 파도어문 등이 소수로 확인된다. 압출양각문은 모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당초와 초문도 일부 보인다. 상감문은 운문, 초문, 학문, 국화문 등의 소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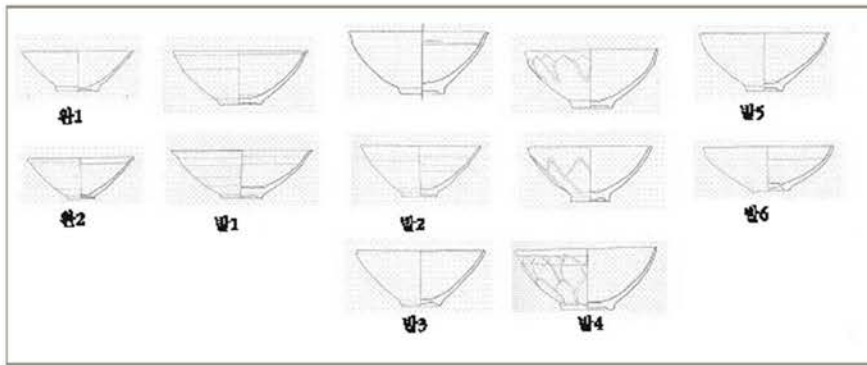


그림 1 청자 완, 발 유형

(2) 접시 (그림 2)

접시는 생산유적인 가마터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고분 부장품도 여러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형식을 묶어서 살펴보았다.

1形은 소형으로 저부에서 구연까지 등근 꼭면이나 사면으로 올라가고 구연이 외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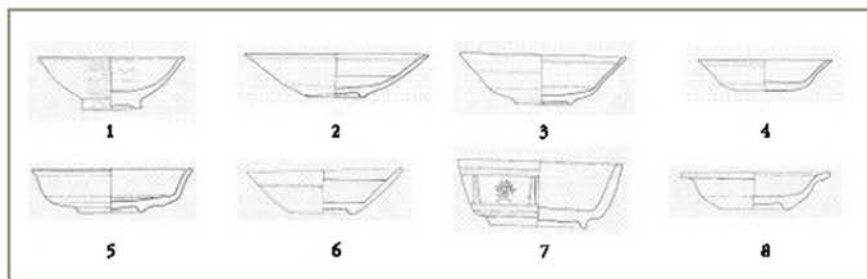


그림 2 청자 접시 유형

이다. 2形은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나 측면이 많이 꺾이지 않고 곡면을 이루고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이다. 3形은 넓은 내저면을 경계로 기벽이 꺾이고 측면이 사면을 이루는 절요접시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압출양각의 무늬가 시문되기도 한다. 4形은 뚜껑과 유사한 형태의 접시로 대부분은 압출양각의 무늬가 있다. 5形은 넓은 내저면에서 수직에 가깝게 기벽이 꺾이는 절요접시로 구연이 외반하고 비교적 크기가 작은 특징을 보인다. 6形은 내면이 넓고 꺾임이 있지만 외면이 저부에서 사면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7形은 각접시, 8形은 화형전접시이다. 접시의 무늬는 압출양각에 의해 시문되었는데 무늬의 종류는 연당초가 가장 많고 모란당초나 국화와 연화, 국도란당초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상감문은 국화문이 가장 많다.

(3) 병 (그림 3)

청자병은 반구병 혹은 叭口瓶, 유병, 매병 등이 부장되었고 반구병의 수가 가장 많다. 1形은 편병, 2形은 반구병의 동체에 연판문이 시문된 것, 3形은 2形을 제외한 반구병으로 무문 혹은 철화가 시문된 것이 있고, 매병을 4形, 팔구병을 5形으로 분류하였다. 유병은 구연이 팔구의 형태인 것과 반구인 것이 있는데 각각 1, 2形으로 하였다.

도기병은 청자병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형태는 편병, 광구병, 팔구병, 매병, 유병이 있다. 도기병은 1形을 편병, 2形을 둥근 동체의 광구와 팔구병으로 하였다. 유병은 팔구병을 1形, 반구병을 2形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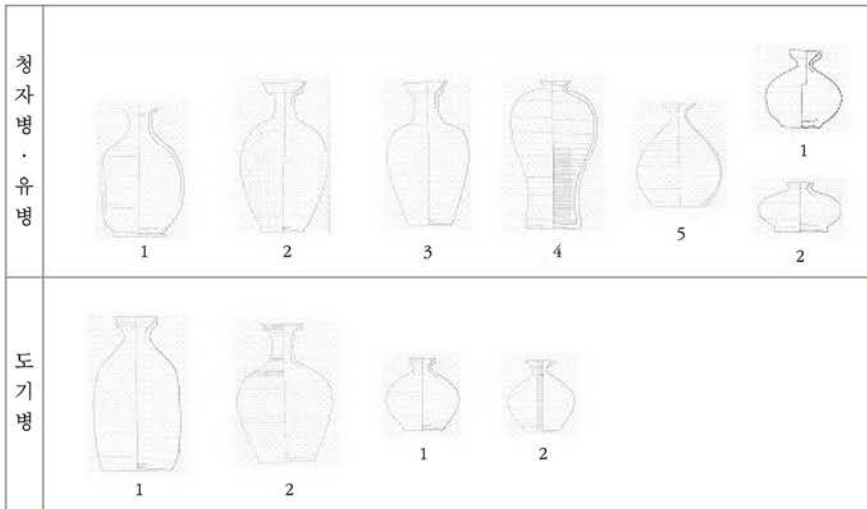


그림 3 청자병과 도기병 유형



그림 4 충청지역 출토 주자

(4) 注子 (그림 4)

고려 고분에 주자가 부장되는 예는 많지 않다. 단월동 1차 9호 석곽, 현곡리 30호 석곽, 호암동 1차 2지구 2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단월동에서는 압출양각접시와 함께 출토된 무문의 과형주자이고, 현곡리 출토품은 청자상감국화절지문과형주자로 청자발, 白畵紋 소형 접시, 팽이잔, 중국제 백자, 반구형 도기병 등이 동반하여 출토되었다. 호암동 출토 과형주자는 도기로 만들어진 것이고 청자압출양각초문발과 도기유병이 동반 출토되었다(그림 5). 부장된 청자 주자는 양질로 무덤의 위상을 알게 한다.



그림 5 단양 현곡리 30호분 출토유물

(5)중국제 자기 (그림 6, 7)

중국자기가 부장된 예는 가오동 2호 토광묘와 현곡리 30호 석곽가 있다. 가오동 2호 토광묘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국산 흑유발·조질의 백자를 비롯해서 청자반구병·유병·접시·청동 숟가락·湖州銘鏡·가랑비너·발 등이 동반 출토되어 풍부한 부장양상을 볼 수 있다. 현곡리는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양질의 국산 자기류들과 중국제 백자가 함께 부장되고 있어 중국자기가 사용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 가오동 2호 토광묘 출토 유물그림

2) 금속류 (그림 8, 9, 10)

부장된 금속류는 청동, 은, 철 등 다양한 재료적 성격을 띤다. 부장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청동 숟가락이고 청동완을 포함한 청동발·접시·합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많은 양의 동경과 인장 등 특수 기종과 가위나 가랑비너, 刀子, 농공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속류가 부장되는 것이다.

청동발은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이는데, 굽이 없는 것 중 구연이 직립하는 것을 1形, 외반하는 것을 2形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굽이 있는 발은 굽의 제작된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굽을 동체와 동시에 제작한 것과 굽을 따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를 3形, 후자를 4形으로 분류하였다. 청동합은 발의 기형변화와 같은 양상을 보여 구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접시는 직립구연과 외반구연으로 나누어 각각 1, 2形으로 구분하였다. 청동 숟가락은 손잡이의 모양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1形은 둥근 형태, 2形은 능형, 3形은 연미형을 하였으나 단순히 병단부 만이 갈라진 것, 4形은 병단부의 중앙이 갈라져 연미형, 5形은 4形에 비해 장식성이 강한 것으로 하였다.



그림 7 현곡리 30호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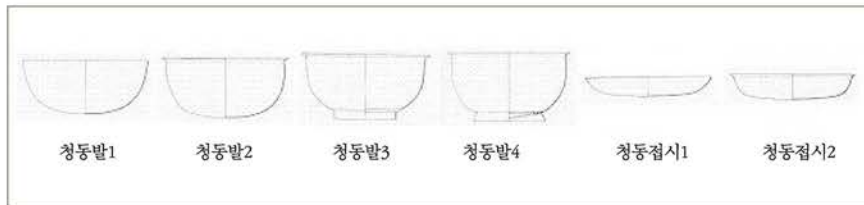


그림 8 청동발과 접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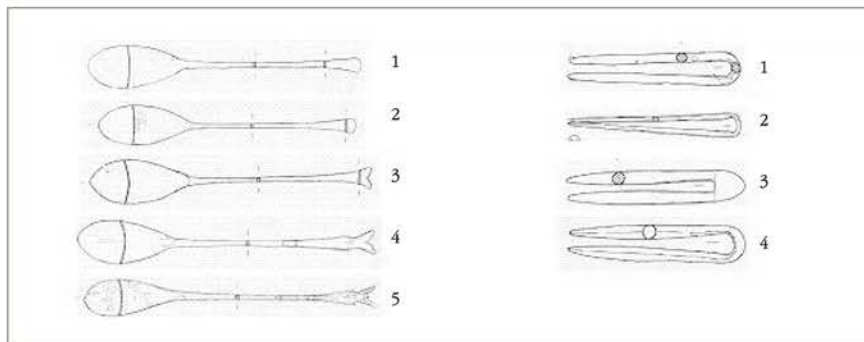


그림 9 청동숟가락, 가랑비너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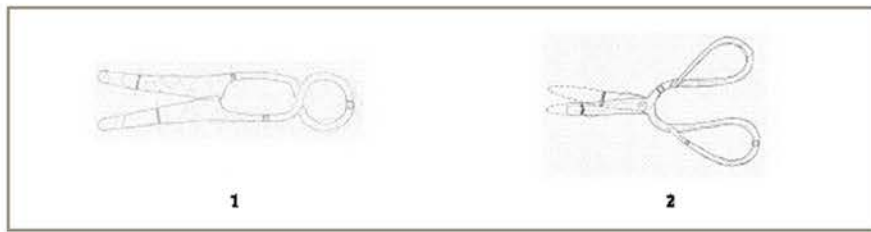


그림 10 가위 유형

가랑비너는 재료적인 차이는 있지만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形은 두부가 'U'자의 형태를 띠고 각부가 선단까지 평행한 형태이고, 2形은 두부가 'c'자 형태를 띠는 것, 3形은 두부가 볼두잡의 형태를 보이는 것, 4形은 1形과 같이 두부가 'U'자의 형태를 띠나 각부의 중앙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위는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1形을 원형 손잡이, 2形을 2개의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동경은 37점에 이르는 짧은 양이 출토되었다. 동경의 외형은 圓形, 方形, 八稜, 五稜이 있고, 무늬는 素文, 七寶文, 雙龍文, 雙魚文, 花文, 牡丹文, 雙鳳唐草文, 雙鳥瑞花文, 寶華文, 鸞鳥唐草文, 雲鶴文, 遊戲童子文, 湖州銘鏡 등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다.

그밖에 刀子, 장신구, 구슬, 농공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물이 다수 부장되었다.

III 순서배열법을 통한 부장품의 편년과 조합

앞에서 간단히 부장된 유물을 분류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순서배열법을 사용하여 유물의 상대편년을 설정하고, 동반유물의 양상을 통해 당시 부장양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순서배열의 대상이 된 유구는 동반유물이 있는 155개로 하였다. 대상 유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결과만을 표로 작성하였다. 유물의 순서는 금속류 보다는 자기류의 편년이 좀 더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나열하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금속유물의 양상을 통해 자기와 금속유물의 동반형태를 해석하였다.

유물의 편년은 전, 중, 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기는 중국에서 이주한 장인에 의해 구축된 전축요를 중심으로 자기가 제작되던 시기로 해무리굽 완을 대표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¹¹⁾ 중기는 장남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11세기 말경부터 13세기 중반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중기의 특징은 강진가마에서 보이는 일정한 유형의 청자인 연관문, 앵부분, 압출양각문 장식의 발과 절요점시, 문형잔, 팽이형잔 등의 새로운 기종과 디자인을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한 토축요에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동일한 양식의 청자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¹²⁾ 중기의 설정과 맞물려 고분 부장품에서도 같은 현상을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후기는 13세기 중반이후로 원 간섭기가 되면서 도자의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 시기가 되면 도자양식이 점차 쇠퇴하고 대형화, 실용화되는 단계로 이해된다.¹³⁾ 생산유적을 중심으로 연구된 이러한 고려도자의 흐름은 고분부장품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고려고분 출토품에 대한 연구가 일정 지역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11) 李鍾政 「始興 芳山洞 初期高麗 廢址 出土 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陶器의 變遷時期」, 『美術史學研究』228·229,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65-97.

12)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해안 2008.

13) 韓盛旭 「高麗 後期 高麗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研究』232, 韓國美術史學會, pp. 57-89. 청자의 기종 분류에 있어서 대접과 발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같은 기종의 다른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 이종민이 의견에 동의해 대접을 포함해서 따로 분류하였다(李鍾政의 앞 글, 2007, p. 11).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 대개는 유사한 부장양상과 편년이 설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자기, 도기, 금속유물 등 구분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장품을 양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세한 편년을 다루기 보다는 전, 중, 후기의 유물의 동반관계를 통해 시기별 부장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전기

전기는 앞서서도 이야기 했지만 해무리굽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동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전기적 특징은 순서배열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완 1형으로 분류된 해무리굽완류와 접시 1형, 청자병 1형과 도기병 1형인 편병, 그리고 도기 유병 중 2형으로 분류된 팔구병이 동반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11) 이와 함께 부장되는 금속유물은 가랑비너 1·2형, 청동발 1형, 청동손가락 2·3형, 가위 1형이 중심이 된다. 유물의 부장량이 도자기나 금속류 모두 많지 않고 단순한 조합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해무리굽완이나 도기 편병류가 단독으로 저장되는 예가 자주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병의 조합에 있어서 청자와 도기의 편병류는 조금씩 동체 원형의 광구병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1 추동리 G-11호분 출토유물

2. 중기

중기로 편년되는 유구에서는 다량의 동전이 출토되어 편년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출토되는 동전의 시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11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을 동반하고 있어 부장시기가 11세기 후반 경임을 시사한다. 중기의 유물상은 매우 다양하고 부장량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장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부장품을 동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부장품이 없는 무덤의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기가 되면 해무리굽완이 사라지고 다량의 발, 접시, 병, 소량이지만 주자나 잔탁 등의 자기유물과 청동발·접시·합·손가락, 가위, 가랑비너, 인장, 刀子 등의 금속유물이 동

반된다. 또 한 가지는 동경이 부장된 무덤에서 자기류 없이 비교적 많은 양의 금속류만을 부장하는 경우가 증가되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전시기에 비해 부장유물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동경의 편년을 세우기는 쉽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동반된 자기를 중심으로 볼 때 중기 어느 시기부터는 동경이 부장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물의 동반관계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청자발과 청동발이 상호연관성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청자발이 부장되는 무덤에서는 청동발이 부장되지 않고 역으로 청동발이 부장된 무덤에서는 청자발이 부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기 고려 고분에 부장되는 유물의 조합 중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발, 접시, 병, 순가락임을 주목하면 이점은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부장품의 재료적 측면과는 별도로 식생활의 기본도구인 발, 접시, 병, 순가락 4종의 의 조합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1) 도자기류

중기에 부장된 유물은 해남 진산리와 인천 경서동을 대표로 하는 조질청자의 일군과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음각문, 압출양각문의 청자가 지방으로 확산된 이후 제작된 지방청자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발의 1, 2, 3형식은 대부분 해남 진산리와 인천 경서동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조질청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청자병 2형(그림 12) 또한 해남 진산리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완도해저유물(그림 13)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중기 초반은 진산리와 경서동 양식의 조질청자류를 중심으로 부장되던 것이 차츰 강진과 부안의 도자양식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순서배열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다.

발 4·5와 접시의 대부분은 중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종과 함께 동반되는 일군의 유물이다(그림 14, 15). 강진과 부안의 공유양식을 대표하는 표지적인 것 중의 하나가 압출양각의 시문법이다. 발 3형식은 주로 진산리나 경서동 등에서 보이는 형태인데 이것과 소수의 압출양각 접시가 동반되기 시작한다. 그 후 외면에 연판문이 새겨지는 발 4형과는 다양한 접시가 동반되고 압출양각 접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미루어 볼 때 강진과 부



그림 12 가오동 2호 토광묘 출토 병



그림 13 완도해저 출토 병



그림 14 명암동 출토 유물



그림 15 추동리 출토 유물



그림 16 봉명동 A-5호묘 출토
파어문발



그림 17 용운리 10-II층 출토
파어문발



그림 18 청자음각파어문발

안 양식의 공유시점은 발 4형과 5형이 본격적으로 부장되는 시기로 비정된다. 구체적인 전환시점은 절대편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에 있는 무덤 중 하나가 금학동 5호이다. 이 무덤에서는 청자발 5형, 3형의 압출양각 접시, 매병과 함께 湖州銘鏡¹⁴⁾이 동반되어 12세기 중반이후로 편년된다. 따라서 강진과 부안유형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는 12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여겨진다.

부장된 유물의 일부는 양질의 강진과 부안산이 있지만 대부분은 충청권의 생산요장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충청권에서 조사된 중기의 가마는 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진천 죽현리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제작된 생산자기의 종류와 구성, 동반관계는 강진이나 부안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장품의 대부분은 가까운 가마 생산품이 중심이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강진과 부안의 양질자기 혹은 중국자기도 소비됨을 알게 한다. 예를 들어 봉명동 A-5호묘에서 출토된 청자음각파어문발(그림 16)은 충청권의 가마터에서는 찾아진 예가 없는 것으로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출토품(그림 17), 청자음각파어문발(그림 18), 청자음각어건명발의 예에서 유사한 양식이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봉명동 A-5호묘에서 출토된 발과 만들어진 수법이나 양식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월동 1차 3호 토광묘에서는 청자음각앵무문발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강진보다는 긴 꼬리가 부안에서 제작된 앵무문을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구완동이나 생리에서도 앵무문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자병은 반구병을 중심으로 부장량이 늘어나고 철화가 시문되는 예가 증가한다. 유병의 수는 많지 않지만 반구와 팔구의 형태가 혼합되어 부장된다. 도기병도 유사하지만 전기에 팔구형이 중심을 이루며 부장되던 것이 반구형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중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고분에 많이 부장되지 않는 주자나 매병과 같은 특수기종이 부장되는 것이다. 매병은 고급기종으로 현전하는 대부분은 전세품이나 최상급 무덤에 해당하는 석실묘나 귀족층의 석곽묘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매병은 고려 중기에 고급스러운 일상생활용기로서 활용되거나 고분에 부장된 예가 많은 것에 비해 고려 말에는 부장품으로 보다 酒器로의 원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인식된다.¹⁵⁾

매병(그림 19)이 부장된 무덤은 단월동 1차 6호 토광묘, 금학동 5·6호 토광묘, 진천 송두리 7호무덤 등이다. 모두 토광묘의 무덤형식이고, 단월동 출토 매병은 5형 발을 동반하는데 구연은 결실되었고 어깨는 긴장한 듯 팽팽하고 저부까지 완만히 좁아들다가 약간 넓어지는 형태이고 견부에 철화초문이 있다. 금학동 5호에서 출토된 매병은 무문으로 약

14) 호주명경은 중국의 浙江省이나 四川省에서 그 예가 보이고 南宋代(1127-1279)에 유행했다(孔祥星·劉一曼·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 주류성, 2003, p. 371.

15) 李鍾珉, 「고려시대 靑磁 梅瓶 연구」, 『講座美術史』27,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157-190.



그림 19 충청지역 출토 매병류

간 벌어진 반구와 구형의 동체와 긴 허리가 있고 저부까지 수직을 이룬다. 금학동 6호 출토 매병은 단월동 매병과 유사한 형태로 약간 벌어지는 반구와 비교적 팽팽한 어깨에서 저부까지 완만히 조아들다가 약간 넓어지는 형태이다. 제작시기는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여겨진다.¹⁶⁾

중기 후반에는 상감청자가 부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산리 12호 토광묘, 구룡리 2호 토광묘와 현곡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마산리에 부장된 자기는 조질 청자인 발5형, 잔, 반구병, 상감접시가 동반 출토되었다. 상감접시는 뚜껑형인 4형 접시의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이 상감되었다.

구룡리 2호 토광묘에서는 靑磁象嵌菊唐草文油瓶과 靑磁象嵌菊花文櫛匙가 출토되었다(그림 20). 접시는 5형의 절요접시로 외측면에 국화절지문이 흑백상감되었다. 유병은 동체의 중심이 가운데 있고 높이가 낮아진 형태로 어깨부분의 상하로 백상감선을 두고 그 사이에 국당초문을 시문한 양질의 청자이다. 시기는 동반 부장된 동전 중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인 嘉泰通寶의 하한을 1201년으로 볼 때 13세기 전반이전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구룡리 2호와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명암동 1차 1호묘가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丹山鳥 銘 먹과 가위, 청동젓가락, 동전이 동반 출토되었다. 동반 유물을 중심으로 편년을 해 볼 수다. 그리고 丹山은 현재 충북 丹陽의 옛 지명으로 고려 현종 9년(1018)부터 충숙왕 5년(1318)에 단양군으로 승격될 때까지 사용되던 이름이다. 따라서 명암동 1호 묘는 13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가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1형의 가위가 부장되던 것이 2형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1).

2) 금속류

중기에는 부장되는 금속유물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기에 제한적으로 부장되던 손가락이 연미형의 모든 형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부장된다. 가랑비너는 청자류가 출토되는 대부분의 무덤에서 불두잠형이라고 하는 3형식을 중심으로 1, 2형이 동반되고, 특히 동경이 출토되는 무덤에서는 3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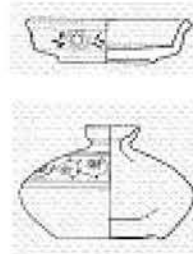


그림 20 구룡리 2호 토광묘 출토유물



그림 21 명암 1차 1호묘 출토유물

16) 금학동 5호의 호주명경이 출토되어 12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됨을 언급하였고, 최근 이종민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2기(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형식이다(李鍾珉의 앞 글, 2006)



그림 22 충청지역 출토 동경류

중기 이후 동경이 다량으로 부장되는 것도 흥미롭다. 현재 대부분의 동경은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편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충남 부여 지역에서 출토된 雙鳳八稜鏡과 七寶文圓鏡을 12세기를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러나 함께 동반된 동전이 宣和通寶(1119-1125)이기 때문에 12세기 전반 이후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¹⁸⁾ 그리고 鴛鴦唐草文五稜鏡과 鴛鴦瑞花文八稜鏡은 13세기 중엽이후로 편년하고 있다.¹⁹⁾ 동경이 청자와 동반출토되는 예는 많지 않지만 素文圓鏡, 七寶文圓鏡, 鴛鴦唐草文五稜鏡 등이 압출양각청자와 동반된다. 그리고 상감청자가 동반 출토되는 것은 운학문원경이 있다. 寶華文鏡은 경산 임당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죽집계가 동반 출토되어 여성의 화장구로 추정하기도 한다. 遊戲童子文鏡은 4명의 동자가 전각 아래에 파초 사이에서 놀고 있다. 도자기에 있어서 동자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압출양각의 문양소재로는 연못에서 놀고 있는 동자를 볼 수 있고, 13세기 이후는 포도문과 함께 시문된다. 동자가 파초문과 함께 보이는 것은 중국 주요요의 청자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동경의 편년은 정확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3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명암동 1차 1호 묘에서 가위가 2형으로 전환되는 것과 청자가 동반되는 무덤에는 가랑비녀 1, 2, 3형식



그림 23 가랑비녀



그림 24 충청지역 출토 인장



그림 27 청자원숭이형 인장

17)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316-317.

18) 황정숙은 칠보문경의 시기를 11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전후로 편년하고 있다(黃貞淑, 『高麗 銅鏡의 研究』, 2000, 大邱가톨릭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 黃貞淑, 『2000, 앞 글.』

이 동반되는 것과 달리 동경이 부장된 무덤에서는 4형의 가랑비너(그림 23)가 출토된다.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금속유물의 양식 변화가 읽어지고, 동경의 부장량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장도 여러 점이 출토되었는데 동물형과 물고기문양 등 상형의 인장이 보인다. 이것은 고려시대 상형자기의 유행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4, 25). 또한 명암동 2차 2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은제 장신구 1쌍은 오리 2마리가 연당초문 아래에서 놀고 있는 형상이다(그림 26).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金銅連枝童子文經匣(그림 27)에서 유사한 문양의 도안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金銅連枝童子文經匣은 연밭과 연꽃 줄기에 동자와 오리, 학이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경갑의 경칩 위에 연당초문은 상감청자에서 자주 보이는 도안으로 각기 다른 공예의 분야이지만 동일한 시대양식을 갖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경갑의 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 반으로 편년되고 있어²⁰⁾ 명암동 출토 장신구도 이와 유사한 시기로 편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동경이 출토되는 무덤의 유물의 조합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동경을 비롯하여 청동발, 청동접시, 청동술가락 이외에 가위, 가랑비너, 구슬, 빗 등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덤의 피장자를 추정할 때 가랑비너가 동반되는 경우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단지 가위와 가랑비너의 동반만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충청지역에서 동반되는 유물의 조합은 피장자가 여성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즉 여성의 생활도구인 가위, 가랑비너, 동경, 구슬, 빗 등이 동반되는 것이다.

3. 후기

후기에 해당하는 무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부장 유물의 양도 중기에 비해서 줄어들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후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는 염창리 V-1호 토광묘가 있다(그림 28). 청자상감운문발의 내면에는 운문이 상감되고 구연단 아래에 3줄의 백상감 선문이 있다. 외면에는 초문이 백상감 되었는데 그 형태가 호림박물관 소장의 靑磁象嵌雲鶴文己巳銘鉢의 외면에 있는 무늬와 유사하다. 2점의 잔 내면에는 도식화된 구름문이



그림 26 명암동 출토 장신구



그림 27 금동연지동자문경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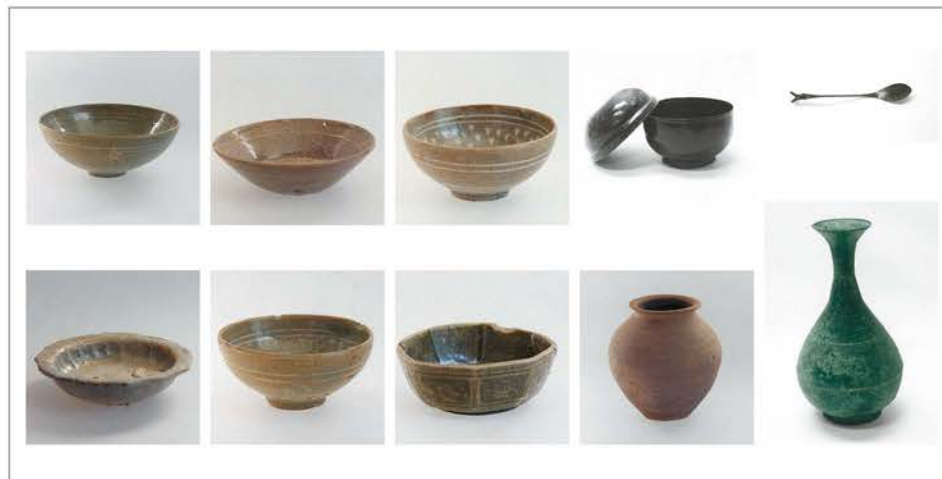


그림 28 염창리 V-1호 토광묘 출토 유물

20)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그림 29 서천 추동리 F-34호 출토 청자상감발

백상감되었고, 외면에는 국화문이 있다. 그리고 접시는 7, 8, 9형으로 그 중심이 높아지고, 4형 발 형식의 합, 대부분의 청자병이 팔구형의 구연에 저부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과 같은 청동병이 출토된다. 청동순가락도 장식성이 강해진다.

추동리 F-34호묘에는 상감문발과 청동순가락이 동반된다. 운두가 높은 발은 내측면 위, 아래에 백상감선문을 돌리고 사이에는 도식화된 운문을 백상감하였다. 다른

한 점은 내지면 중앙에 백상감선문을 도린 후 외곽으로 여의두문, 내측면에 학문을 흑백상감하고 상부에 음각선문을 상감하였다. 이들 상감청자의 특징은 크기가 대형화되었고, 백상감을 위주한 도식화된 문양을 여백이 많이 드러나도록 시문한 것이다(그림 29).

청자병은 중기의 반구병이 거의 없고 5형과 같이 팔구에 무게중심이 저부에 있어 안정감이 있는 상감청자병과 굴곡이 심한 도기 매병이 동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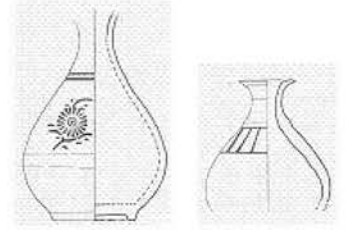


그림 30 송두리 6호 출토유물



그림 31 송두리 7호 출토유물

IV 부장품의 시대양식과 지역성

지금까지 충청지역 고분 부장품을 순서배열법으로 나열하여 그 시기적인 특징과 유물의 조합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았다. 먼저 시대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려 전기 해무리굽완을 중심으로 제작된 자기와 통일신라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도기편병의 조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려 전기 토기에서 청자로의 전환점을 잘 이해하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중기는 고려 공예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기임을 알 수 있다. 공예의 발전은 수요층의 확대라는 전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소비 욕구는 더욱 생산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강진과 부안의 일정양식이 전국에 확산되어 유사한 형식의 자기가 제작되고, 이렇게 제작된 지방의 자기는 지방의 수요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고급 공예품에 대한 욕구는 양질의 강진과 부안의 국내산 자기뿐 아니라 중국 자기의 수입에까지 의존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중기의 시대성은 고분 부장품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금속제품도 그 생산량이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문양의 동경이 제작되었다. 동경의 원류를 중국의 遼와 金에 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최근 도자사나 다른 금속공예에 있어 遼·金의 영향을 지적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²¹⁾ 다양한 접촉을 통한 공예품의 발전은 고분의 부장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기에 薄葬이던 부장양식은 중기에 이르면 다양한 종류로 많은 양이 부장된다. 그러나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를 이루는 충청지역의 부장품은 청자의 경우 고급수요층을 가지는 상감자기보다는 무문, 압출양각, 음각의 조질청자가 중심이 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후기는 유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장유물도 중기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

21) 鄭信玉,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器의 影響」, 2004,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2005,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애의 앞 글, 2007.

다. 상감자기가 주를 이루며 부장되고 중기와는 다른 형태의 금속유물이 부장된다. 부장된 청자는 중기의 상감청자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시문된 문양도 도식화되고 단순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시대성이라는 보편성을 이해했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충청지역만의 부장양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리하 생각된다. 먼저 무덤의 구조에 있어서 무덤 바닥에 작은 구멍이를 파고 중앙에 요개를 파는 형태의 특징을 들 수 있다. 그래도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양의 금속유물이 부장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중 동경이 청주, 충주, 단양을 중심으로 다량 출토되고, 다양한 형태의 인장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동경의 대부분이 출토지가 불명확하고, 개성 출토품으로 전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유난히 충청지역에 동경의 부장률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경은 고대로부터 象徴的이고 神異的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고려시대에 오면 보편화의 흐름을 타고 생활지번으로 확대된 것이란 견해가 있다. 따라서 동경은 귀족들에게 冠帽를 비추어보거나 용모를 다듬는 化粧具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²²⁾ 동경이 생활용구로 확대되고 화장구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충청지역 고분출토품을 통해서 잘 이해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무덤에 부장된 유물은 실생활용기임이 증명되었고, 특히 동경이 부장된 무덤의 동반 유물은 가위, 가랑비녀, 빗, 구슬 등으로 여성의 화장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동경이 상징성을 가지는 용구에서 일상용구로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난히 충청지역에 동경이 많이 부장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만하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충주의 多仁鐵所가 아닐까 한다. 고려 중기 공예품의 유통구조를 보면 대부분 가까운 곳에 생산된 물품을 주변지역에서 소비된 것을 볼 수 있다. 금속유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충주지역의 다인철소를 중심으로 고급의 금속기가 제작되었을 것이고, 제작품의 일부는 주변의 세력가나 부호들의 수요를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주자나 매병과 같은 특수기종의 부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고급수요자층 위주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수기종의 부장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지닌 자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시대 충청지역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충청지역의 고려 고분 부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분에 부장된 유물은 일상생활용기이고, 발·접시·병·술가락의 조합이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이유로 청자발이 부장될 때는 청동발이 부장되지 않고 청동발이 부장될 때는 청자발이 부장되지 않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기적인 특징을 보면 전기에는 해부리굽완과 도기편병을 중심으로한 동반관계가 형성되거나 부장량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에 이르면 많은 양의 다양한 부장품이 동반된다. 청자는 강진이나 부안의 생산품으로 보이는 양질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에서 제작된 조질의 청자이다. 그러나 유물의 조합은 강진과 부안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지만 상감청자가 동반된다. 금속유물도 다양한 종류가 보이는데 특히 다

22) 黃貞淑의 말 글, 2000, p. 98.

수의 동경이 동반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중기 후반기가 되면 가위나 가랑비녀 등 금속유물이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후기는 상감청자가 주를 이루는 동반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감청자의 질이 떨어지고, 무늬도 도식화, 장식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유물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져서 가위는 손잡이가 2개인 2형, 청동발은 굽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는 4형의 점유율이 많아진다.

일련의 과정에서 충청지역의 지역색이 도출되었다. 충청지역 고려 고분 부장품의 양식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량의 금속유물과 매병·주자와 같은 특수기종이 부장되는 지역색을 보인다. 즉 30점 이상의 동경의 부장과 동반유물을 통해 아직까지는 부족하게나마 시기를 설정할 수 있었고, 상징성이 강조되던 고대의 의미가 변화되어 생활용구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을 이해하게 했다. 동경이 부장된 무덤의 동반유물이 여성의 생활용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장자의 신분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가랑비녀의 명칭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매병이나 주자와 같은 특수기종의 부장을 들 수 있다. 매병이 고급기종으로 최상급 무덤에 해당하는 석실묘나 귀족층의 석곽묘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매병은 고려 중기에 고급스러운 일상생활용기로서 활용되고 부분적으로는 무덤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당시 충청지역의 위상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호남지역 고려분묘 출토 청자의 성격

김병수 | 목포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II 호남지역 고려분묘 분석
III 호남지역 청자의 기종별 변천과정
IV 호남지역 고려분묘 출토 청자의 성격
V 맺음말

I 머리말

호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는 매우 미비하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삼을만한 대규모의 고려분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발굴의 급증으로 인해 장흥과 진안지역에서 대규모 고려 분묘가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고금남 2005, 김병수 2004, 2005, 2007).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는 단기간에 부장된 유물로서 청자의 시기적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물론 당시 고려 청자의 다양한 유물을 보여줄 수 없으며 한정적인 부장양상으로 인한 단점도 있지만 주요 기종인 대접과 접시, 병의 편년적 고찰을 하는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호남지역 고려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의 성격을 유구의 형식변화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 분묘를 석곽묘와 토광묘로 크게 구분하였고, 다시 석곽묘는 각 속성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묘제의 변천 양상과 출토 유물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호남지역 고려분묘 분석

1. 유구의 형식분류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의 분묘로는 석실묘(왕릉 포함), 석곽묘, 석관묘, 토광묘 등이 있다. 이중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분묘는 석곽묘와 토광묘로 대별된다.

1) 석곽묘

석곽묘의 형식분류를 위해 우선 일반적으로 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납방법, 석곽의 부수시설, 장벽의 축조기법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¹⁾ 매납방법은 크게 횡구식과 수혈식으로 분류된다. 석곽의 부수시설은 호석을 갖는 것, 바닥석을 갖는 것, 호석과 바닥석 모두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장벽의 축조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²⁾ 첫 번째 형식은 平積으로, 1단부터 최상단까지 모두 석재의 넓은 면이 위를 보도록 한 것(가)이고, 두 번째 형식은 1단은 가로면을 垂積한 후 2단부터는 平積한 것(나)이다. 끝으로 1단을 세로면으로 垂積한 후 개석을 덮는 형식(다)이 있다. 분류과정에서 한 분묘내에 가식과 나식이 공존하는 양상과 나식과 다식이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 되었다.³⁾ 이러한 현상은 석곽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가, 가+나, 나, 나+다, 다 형식의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표 1과 같이 크게 3형식의 석곽묘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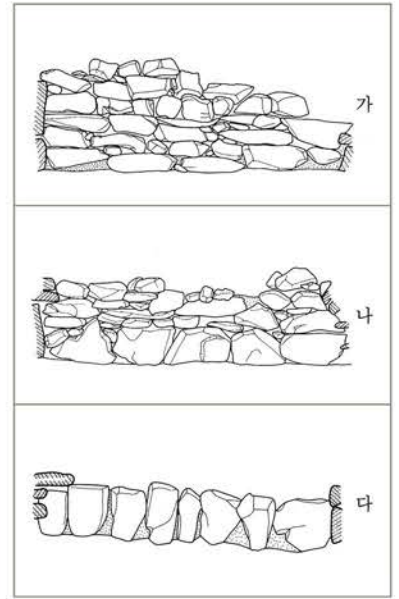


그림 1 장벽의 축조방식

형식	매납방법		석곽의 부수시설			장벽 축조기법				
	횡구식	수혈식	호석	바닥석	무시설	가	가+나	나	나+다	다
I A	●		●	●		●	●	●		
I B	●				●	●	●	●	●	●
II		●			●			●	●	●

표 1 석곽묘의 형식별 속성 관계

(1) IA형식 석곽묘

이 형식은 횡구식 석곽묘로서, 호석이나 바닥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100cm 이내가 일반적이다. 다른 형식에 비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장벽의 축조기법은 '가', '가+나', '나' 식이 확인되며, '다' 식은 보이지 않는다. 두향은 주로 북쪽이 대부분이며, 등고선 방향과 대부분 직교한다. 유물의 매납방식은 피장자의 머리말이나 가슴 부분에 놓는 경우가 많다. 출토유물은 토기향완, 토기발, 토기유병, 청동수저 등이 있으며, 토기류의 유물이 주를 이룬다.

(2) IB형식 석곽묘

이 형식은 횡구식석곽묘이지만 IA형식과 달리, 호석과 바닥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길이가 190~260cm이고, 너비는 50~120cm로 규모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장벽의 축조기법은 '가' ~ '다' 식 모두 보이는데, '나+다' 식, '다' 식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두향은 주로 북쪽이 대부분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유물의 매납방식은 청동유물의 다양화로 인해 동곳, 동경, 동전 등은 피장자의 머리말이나 가슴 부분에 놓으며, 그릇은 머리말에도 놓지만 피장자의 가슴 부분에 놓는 경우가 많다. 출토유물은 청동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토기류의 부장이 현저히 낮아진다. 일부 청자류가 출토되기는 하나 주로 해무리굽을 갖고 있는 청

1) 석곽묘의 형식분류에 있어서, 고금님은 장벽의 축조기법과 장축과 단축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간성의 차이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 장벽의 축조기법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인정되나, 필자 분류의 IB형식 석곽묘에서는 모두 확인되고 있어, 장벽의 축조기법만을 기준으로 한 시기 설정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석곽의 장단축비는 횡구식과 수혈식 석곽의 묘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시기에 따른 "선호도"로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본다.

2) 고금님은 진안 수천리유적을 대상으로 장벽의 축조기법을 크게 3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필자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축조기법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3) 장벽은 크게 가·나·다로 분류되지만, 가와 나 사이에 한쪽 장벽은 가식을, 맞은편 장벽은 나식인 경우가 있다. 또한 나식과 다식 사이에도 한쪽 장벽은 나식, 다른 장벽은 다형식인 경우도 확인된다.

자완과 청자접시, 청자철화광구병, 녹청자류가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류 중에는 동경과 청동인장, 은제장신구 등 장식성이 높은 유물들이 출토되며, 일반 식기류가 주를 이룬다.

(3) II형식 석곽묘

이 형식은 수혈식석곽묘이며, 호석이나 바닥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길이가 190 ~ 220cm, 너비가 50 ~ 70cm로 비교적 정연한 편으로 IA·IB형식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장벽의 축조기법은 '나', '나+다', '다' 식이 확인된다. 특히 '가', '가+나' 식이 보이지 않고 '다' 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출토유물에 있어서 토기류의 부장이 현저히 낮아지고, 청자의 경우 반구병의 출토비율이 높아지며 기종에 있어서도 다양해지는 양상을 띤다. 또한 양각, 상감기법 등 시문기법도 다양해진다.

2) 토광묘

고려시대 토광묘가 확인된 유적으로 진안 수천리, 고창 교운리, 팽주 쌍촌동, 군산 도암리, 고창 석교리, 무주 유동리, 김제 장산리, 장흥 신월리 등이 있다. 토광묘는 유구의 특성상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시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 중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는 II형식 석곽묘에 의해 파괴된 토광묘와 동시기인 토광묘와 동전이 출토되어 편년을 유추할 수 있는 토광묘, 그리고 고려 후기 청자가 확인되는 토광묘 등이 있다. 물론 토광묘의 유물상을 통해서만 볼 때 상한이 II형식 석곽묘와 비슷한 시기의 토광묘가 혼재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 진안 수천리이다. 진안 수천리의 10-1호 토광묘, 16호 토광묘 등은 II형식 석곽묘에 의해 파괴되어 II형식 석곽묘보다 선행하는 토광묘가 존재한다. 그러나 10-1호 토광묘의 출토 청자를 통해 볼 때 II형식 석곽묘와 동일시기이거나 약간 후행하는 정도이다. 즉 II형식 석곽묘와 시기적으로 비슷하여 석곽묘와 토광묘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석곽묘의 형식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유구와 출토유물의 수가 적어 이는 차후에 연구자료가 축적되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유물의 부장양상

고려시대 분묘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와는 달리 무기류의 매납이 몇 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기류도 실제 사용가능한 것보다는 축소되고, 의례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동곳과 같은 장신구류, 벼루 등과 같은 실생활용품, 차를 마시는데 애용되었던 청자류들이 부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 당과 활발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으며, 도당유학생과 선승들의 귀국으로 당 문화가 많이 유입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의 매장풍습의 변화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무기류와 같은 호신용 대신에 동곳, 벼루, 청자류 등은 문화와 학문의 발달과 관련된 것들로 대체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청자류의 부장은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겼으며, 부안과 강진 등과 같은 한정된 가마터에서만 청자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규제가 엄격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유물이었을 것이다. 매장풍습에 있어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내용들만 정리해보면, 동곳을 매납하는 경우 피장자의 머리부분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병·동경 등은 피장자의 가슴부분, 청자병·대접·접시·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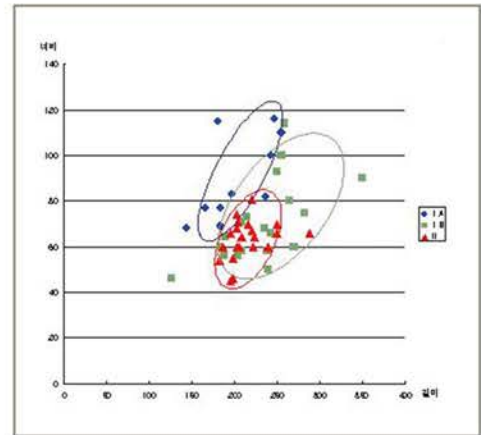


그림 2 석곽묘 규모에 따른 형식별 분포현황

표 2 호남지역 석파교 속성현황

유적명	호수	매납방식		석곽의 부수시설			장벽 축조기법					형식	
		횡구식	수혈식	호석	바다시설	무시설	가	가+나	나	나+다	나+다		
광주 쌍촌동	2	●			●				●			IA	
	4	●				●	●					IB	
군산 나포리	석파교		●			●				●		II	
군산 도암리	20				●				●			IA	
	24	●				●			●			IB	
군산 미룡동	1		●			●					●	II	
군산 옥정리	3	●				●						IB	
남원 행정리	석파교	●				●	●					IB	
담양 대치리	나지구 횡구식석실	●			●				●			IA	
부안 장동리	석파교					●						II	
영광 화정리	석파교					●	●					II	
익산 용포리	93-1	●			●				●			IA	
익산 원수리	석파교	●				●		●				IB	
익산 월곡리	1	●			●				●			IA	
	2	●				●			●			IB	
	3	●				●	●					IB	
익산 유성리	석파교	●				●					●	IB	
장수 호덕리	B-1호	●				●	●					IB	
장흥 하방촌	4		●			●						●	IB
	5	●			●			●				IA	
	7	●				●					●	IB	
	8	●		●	●				●			IA	
	9	●				●			●			IB	
	10				●				●			IA	
	11				●							IA	
	12			●	●				●			IA	
	13				●							IA	
	16	●								●		IB	
	18		●			●					●	II	
	20				●				●			II	
	21	●			●	●		●				IA	
	29				●					●		II	
	30				●					●		IA	
	31		●			●						II	
	32	●				●				●		IB	
	진도 용장산성	석파교							●				II
진안 수천리	1	●				●	●					IB	
	3	●			●		●					IB	
	6				●			●				II	
	8				●	●		●				IA	
	9				●			●				II	
	10		●			●			●			II	
	11	●				●			●			IB	
	12	●				●			●			IB	
	15				●			●				IA	
	18		●			●				●		II	
	19		●			●			●			II	
	20		●			●					●	II	
	21	●				●			●			IA	
	22	●				●			●			IB	
	24		●			●				●		II	
	25		●			●			●			II	
	26		●			●			●			II	
	27-1		●			●			●			II	
	30		●			●				●		II	
	31	●				●			●			IB	
	33		●			●			●			II	
	34					●			●			II	
	35	●				●				●		IB	
	36		●			●			●			II	
	38	●				●			●			IB	
	40		●			●			●			II	
	42	●				●			●			IB	
	44	●				●			●			IB	
46	●				●			●			IA		
48					●				●		II		
50	●				●			●			IB		

순가락의 세트유물은 피장자의 발치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고려분묘에 부장된 양상을 통틀어 볼 때 가장 보편적인 부장양상으로 보인다. 각 시기적 부장풍습을 살펴보면, 1기는 도·토기류와 도기병이 주류를 이루며, 청동제 과대도 눈에 띈다. 유물의 매납위치는 피장자의 머리맡이나 가슴부분에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납위치는 이 시기만의 특징으로 발밑에 유물을 놓는 예는 없다. 2기는 청동용기류 매납이 주류를 등장하고 간헐적으로 해부리굽완을 비롯한 청자류와 토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이시기는 청동제, 철제, 토기류, 청자류등 다양한 재질의 부장품이 확인된다. 매납위치는 상·중·하 위치에 큰 선호도 없이 다양하다. 특징적인 것은 군산 도암리 24호 유적에서는 감실이 확인된다. 3기는 청자류의 부장율이 매우 높으며, 반면에 청동용기류의 부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매납의 위치는 상·중·하 모두 사용하지만 특히 발치에 유물을 놓는 경우가 증가한다. 4기는 석곽묘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토광묘만 살펴 볼 수 있는데 각 시기 별 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시기는 유구의 수도 매우 적다. 이는 발굴 자료가 증가되면 출토비율에 대한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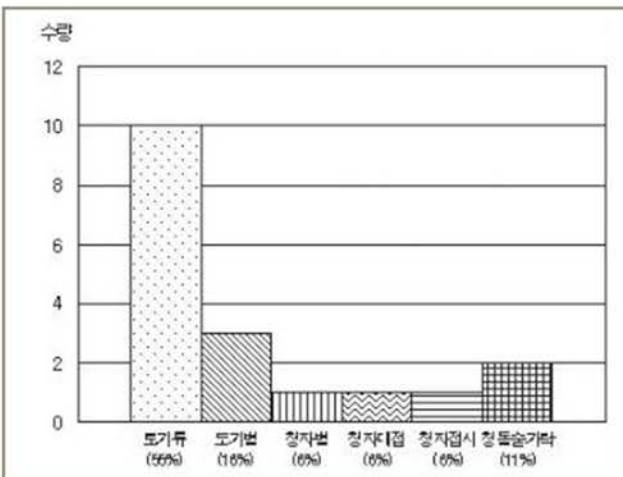


그림 3 Ia형식 석곽묘 유물 출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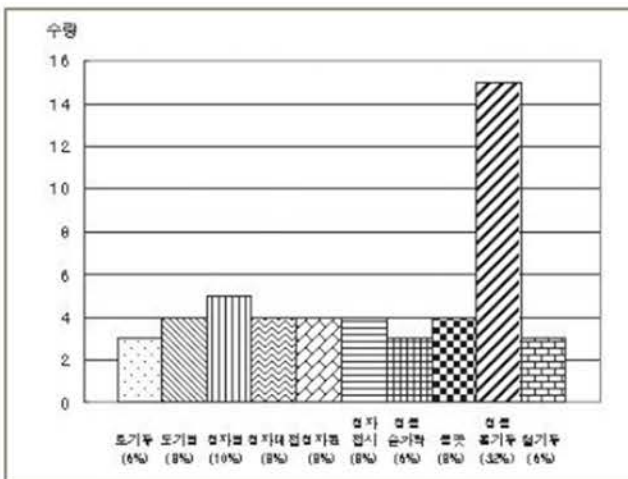


그림 4 Ib형식 석곽묘 유물 출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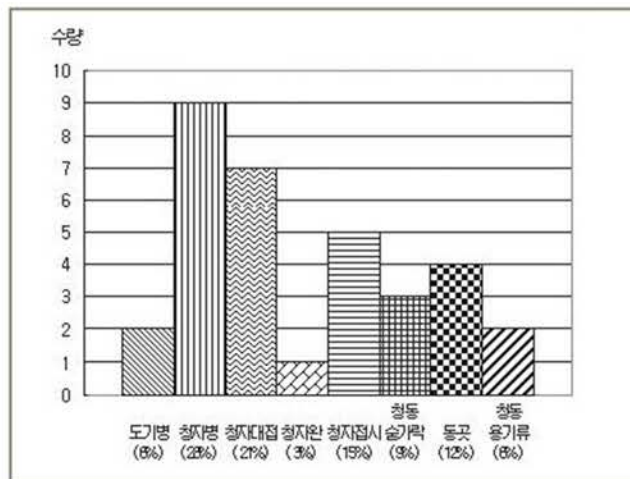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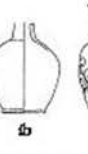


















그림 5 II형식 석곽묘 유물 출토 비율

III 호남지역 청자의 가품별 변천과정

1. 석곽묘 출토 청자류

본고에서 다루는 석곽묘 출토유물은 청자류만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각 종류별 분석에서는 석곽묘의 형식이 확실한 유물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형식이 불분명한 유구의 출토품을 함께 분석할 경우 생기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표 4 유물 종류별 편년안

시기 형식	1기			2기		3기		4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도기병	 1호	 2호	 1호	 1호	 2호	 1호	 1호	 1호	
청자 반구병		 1호	 1호	 1호	 1호	 2호			
청자 주자			 1호		 1호				
청자 대접		 1호	 1호		 1호		 1호		
청자완		 1호	 2호		 1호				
청자 접시			 1호		 1호	 2호	 3호	 1호	 2호

1) 청자대접

IA형식의 용포리 93-1호 석곽묘 출토 대접은 병·접시와 함께 공반 출토 되었다. IA형식에서 확인되는 청자는 모두 용포리 출토품이다. 이는 이들 청자의 시기가 빠르다는 것 보다는 93-1호 석곽묘의 유구 속성 중 바닥시설의 속성이 늦은 단계까지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단 1기 밖에 확인되고 있지 않아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 발굴성곽이 축적되면, 수정 보완 될 것으로 생각된다.⁴⁾

IB형식의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접의 기형은 굽이 높고 구연은 외반된 것이 특징이다. 문양은 연판문이나 음각연판문이 드물게 발견되나 대부분 무문이다. IB형식 중 하방촌 9호 석곽묘에서 확인된 대접은 현문필의 분석에 따르면 E형으로 이러한 기형은 강진 용운리 10-II층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해무리굽완보다 늦은 단계로 보고 있다(현문필 2005).

II형식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접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연부가 직립 내지는 내만하며, 문양은 연판문이 확인되며, 무문이 주를 이룬다. II형식 석곽묘는 상감기법이 확산되며 이와 함께 양각기법 가운데서도 도범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압출양각 기법이 음각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양 장식의 중심을 이룬다(장남원 2003). 또한 부안 유천리 출토 유물 중 연판문대접을 12세기 후반~13세기까지로 상정하고 있다(한정화 2005). 따라서 IB형식 석곽묘 출토품에서 II형식 석곽묘 출토품으로의 시간적 변화가 인정된다.⁵⁾

2) 청자완

청자완은 IB형식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었고, II형식에서는 1점만 출토되었다. IB형식에서 출토된 청자완은 모두 해무리굽완이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해무리굽완 중에 호덕리 B지구 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은 유일하게 백자이다.

청자완 중 해무리굽은 청자 발생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발생설은 9세기 초부터 시작해 매우 다양하나 윤희의 편년안에 따르면, 용인 서리요지의 퇴적층에서 초기의 해무리굽완보다 오래된 선해무리굽완⁶⁾·발 층이 발견되었는데 얇은 원통형의 갑발, 좁은 굽의 청자완 등이 출토되었다. 그와 함께 벽돌가마의 유구도 발견되었는데 이들 자편들과 갑발·가마벽돌이 고양·서산·진안 등의 청자요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였으며, 이들은 중국의 오대·북송초의 월주·정요산 자기와 비교될 수 있어 주목된다.

가장 오래된 선해무리굽 퇴적층이 오대·북송초인 10세기 후반경이므로, 고려자기의 기원이 1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호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해무리굽완의 특징은 모두 내저원각식이다. 중국의 옥벽저완은 모두 내저면에 원각이 없이 완만한 내저곡면식인데 반해, 현재까지 호남지역 분묘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청자완은 모두 내저원각식인것이 주목된다. 반면 II형식 석곽묘에서 확인된 1점의 청자완은 해무리굽이 아니며, 내면에는 압출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으며, 구연부 내면에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어 시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I형식 석곽묘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토광묘에서 해무리굽완이 출토된 예가 없다.

4) 편년설정에 있어서 중첩된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즉 과도기적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장벽의 축조기법이 '나'식인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5) 박미옥은 구연의 형태에 따라 외반구연을 I류, 내만구연을 II류, 직립구연을 III류로 구분하였으며, III류에서는 구경과 높이의 비율에 따라 구경:기고의 비고 2:1 정도를 A류, 구경:기고의 비가 3:1 정도를 B류로 하였다. 이상의 속성 분류 결과에 의해 각각의 조합에 형식명을 부여하여 I류는 I식, II류는 II식, IIIA류는 IIIA식, IIIB류는 IIIB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공반유물과 검토하여 I식은 9세기말~11세기까지, II식은 12~13세기 중엽, III식은 13세기 중엽~14세기까지로 보고 있다(박미옥 2006). 대접의 형식분류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구연부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공통된 연구양상을 보인다(양미옥, 현문필, 박미옥 등).

6) 선 해무리굽완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접지면의 폭이 넓은 해무리굽층의 바로 밑에서 발견되어 붙여진 명칭으로, 이 유적에서 확인된 해무리굽완의 접지면 폭이 0.5~0.8cm 정도로 굽을 예리하게 깎은 것이 특징이다(전송창 2001)

따라서 해무리급완은 IB형식 석곽묘가 축조되는 한정된 시간에 부장된 후,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아 시기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IB형식 석곽묘에서 확인된 해무리급완에서 II형식 석곽묘에서 확인된 압출기법이 시문된 청자완과의 시간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청자접시

청자접시는 석곽묘에서 25점이 출토되었으나 형식이 분명한 석곽묘 출토품은 10점이다. 청자접시도 구연부의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IB형식은 외반된 구연부가 일반적이지만 II형식에서는 직립 내지는 살짝 내만되는 형태의 구연부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크기에 있어서도 IB형식 보다 II형식의 접시가 구연부는 더 넓고 높이는 낮아져 접시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문기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단계인 IB형식에서는 무문이 주를 이룬다면, II형식은 연판문, 압출, 음각기법 등의 다양한 기법이 배풀어지고 있다.

4) 청자반구병

청자반구병은 총 24점이 확인되었는데, 석곽묘에서 22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형식이 분명한 석곽묘 출토품은 10점이다. 반구병은 IB형식 석곽묘와 II형식 석곽묘에서 출토되는데, IB형식 석곽묘에서는 연판문이 주를 이룬다. 두 형식의 석곽묘에서 청자철화반구병이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이는 석곽묘의 점진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자병(기타)

IB형식에서는 구연부가 유실된 평저의 무문병과 음각기법의 연판문이 시문된 해남유형의 조질청자 주자가 확인되었다. II형식에서는 외반된 구연부와 하단부가 둔중한 형태의 무문병과 상감기법이 시문된 주자가 확인되고 있다.

2. 토광묘 출토유물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도기병, 도·토기류, 청자대접 및 청자접시, 동곳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토광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II형식 석곽묘보다 선행하거나 동시기인 토광묘와 동전이 출토되어 편년을 유추할 수 있는 토광묘, 그리고 고려 후기 청자가 확인되는 토광묘이다. 물론 토광묘의 유물상을 통해서만 볼 때 상한이 II형식 석곽묘와 비슷한 시기의 토광묘가 혼재된 경우도 확인이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 진안 수천리이다. 진안 수천리의 10-1호 토광묘, 16호 토광묘 등은 II형식 석곽묘에 의해 파괴되어 II형식 석곽묘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10-1호 토광묘의 출토 청자를 통해 볼 때 II형식 석곽묘와 동일시기이거나 약간 후행하는 정도이다. 즉 II형식 석곽묘와 시기적으로 비슷하여 석곽묘와 토광묘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석곽묘의 형식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유구와 출토유물의 수가 적어 이는 차후에 연구자료가 축적되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주 유동리 토광묘에서는 崇寧重寶(1102~1106년)가 함께 출토되어 출토청자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전의 경우 전세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전만을 통해서 하한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반된 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대략 12세기 전반기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진안 수천리 10-1호 토광묘와 무주 유동리 토광묘는 II형식 석곽묘와 공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토광묘는 특히 진안 수천리와 같이 석곽묘와 토광묘가 같은 묘역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구배치와 출토유물에서 II형식 석곽묘와 토광묘가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이 혼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류의 출토상황을 보면 II형식 석곽묘는 대부분 청자반구병인데 반해 토광묘에서는 그 자리를 도기반구병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석곽묘와 토광묘의 시간적·계층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또한 II형식 석곽묘 이후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대의 청자유물들이 확인되는 토광묘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석곽묘에서 13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되는 청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또 하나의 시기 설정을 위한 특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광묘의 하한은 14세기대로 대표적인 유물은 장산리의 청자상 감국화문팔각접시가 있다.

IV 호남지역 고려분묘 출토 청자의 성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묘의 형식변화와 출토청자를 통해 호남지역 고려분묘의 시기를 크게 4시기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기는 IA형식 석곽묘 단계이다. 출토유물은 다른 형식에 비해 빈약한 편이며, 토기류와 도기류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고려분묘의 1기를 고려가 건국되는 918년으로 설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시기설정이다. 이는 청자의 발생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반도의 청자발생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통일신라기 발생설(9세기설)과 고려초기 발생설(10세기설)로 크게 구분된다(이종민 2002). 청자의 발생은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봉천 원산리에서 출토된 『淳化三年』·『淳化四年』銘靑瓷와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된 편년자료 등에 의거하여 10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하였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청자의 발생기를 10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때 고려건국기인 10세기 초반에는 아직까지 청자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전 단계였기에 호남지역에서는 여전히 토기류와 도기류를 부장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 시기인 통일신라와 후백제의 영향이 고려 초까지는 잔존했던 9세기 중반~10세기대를 전후하는 나말여초기로 설정하였다.

2기는 IB형식석곽묘 단계이다. 이시기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해무리굽 청자완과 청동용기류가 특징적이다. 해무리굽 청자완은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10~11세기에

만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자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등 IA형식의 석곽묘에는 부장되지 않던 청자유물의 부장이 시작되고 있다. 청동용기류의 부장 역시 IB형식의 석곽묘에서 시작되며, 그 비율도 33%로 다른 유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시기는 앞서 사료에서도 확인했듯이 청동용기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시기였으며, 반면 청자류는 귀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3기는 II형식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요 묘제로 사용되는 단계이다. 3기는 12~13세기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의 갈등기이지만 자기류는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이다. 12세기부터 13세기 전반에 이르는 고려중기 청자는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 기량이 절정을 이룬다. 백자와 흑자의 제작이 활발해지고, 청자에서도 비색의 음·양각청자를 비롯한 순청자와 상감청자, 진사채청자, 상형청자, 철화청자 등 다양한 청자들이 제작되었다(장남원 2003).

특히 11세기 말의 청자가 무문위주로 자기를 생산하던 것에 비해 이 시기는 무문을 비롯하여 음각과 압출양각, 철화, 퇴화기법 등이 등장하며, 문양은 모란문과 연판문, 앵무문, 당초문 등 다양하게 시문되는데, 주류를 이루는 문양은 모란문과 연판문이다. 기벽이 전 시기보다 얇고, 대부분 거친 내화토비집과 규석받침을 놓고 번조하였다.

12세기 전반은 비색청자가 제작되던 시기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는 상감기법을 이용한 독창적 시문기법을 다양하게 응용하였다. 12세기 후반은 의종대(1147~1170년)와 명종대(1171~1197년)로 이어지는 귀족사회의 전환기로 귀족사회의 절정기이자 몰락기였고, 고려도자에 많은 영향을 끼친 변화의 시기이다(윤용이 1986).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보면 토기류의 부장은 극히 드물고, 청자류와 청동기류가 중심을 점한다. 이시기는 청동용기류의 부장비율이 전 단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같은 재질인 동곳과 청동손가락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동손가락은 거의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청자류의 부장 비율이 높아진다.

4기는 토광묘가 주로 사용되는 단계이다. 물론 조선시대 전기까지 석곽묘가 확인되고 있어 석곽묘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차후 발굴자료가 확보되면, 수정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의 구조적 특성상 형식의 설정은 어려움이 있지만,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3세기 후반~14세기대로 설정된다.

청자는 14세기가 되면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질적으로는 더욱 퇴화되어 기벽은 두터워지고, 기형은 대형화되면서 둔중해지고 구연은 대접의 경우 대부분 내만되며, 굽도 13세기대 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문양은 간략화되거나 집단문양이 반복되는 등 도식화·양식화되고 있다. 유색에 있어서도 황색조와 갈색조를 띠는 점차 어두운 색조로 변해가고 있어 매우 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도 또한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거칠어진다(한성욱 2001). 4기에 들어서면서 분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석곽묘도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이시기에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즉 13세기 후반은 몽고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호남지역까지 피해를 주는 시기이며, 결국에는 몽고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어, 몽고에 의한 무리한 일본정벌과 수탈로 인해 그 피해가 매우 컸다. 또한 왜구의 침입으로 강진의 청자요지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이들 도공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즉 국가의 통제권이 약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시기에 분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비단 호남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13세기 중반 이후 석곽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여 지고 있는 현상이었다. 고려후기 몽고의 정치간섭과 수탈, 왕권의 약화는 곧 이러한 분묘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호남지역 고려분묘의 형식분류와 출토 청자의 변화양상을 통해 호남지역 고려분묘와 출토 청자의 성격에 대해 미흡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호남지역 고려분묘와 출토 청자를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물론 청자의 경우 생산시기와 부장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세의 가능성도 있고, 실생활에 사용된 후 부장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묘의 변천과정과 청자의 부장양상이 4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구와 유물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호남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을 분석한 것으로,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타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호남지역 고려분묘 및 청자의 성격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史』

『東文選』

『宣和奉使高麗圖徑』

장인구, 1980, 「무주 유동리의 고려고분과 출토유물」 『미술자료』 26, 국립박물관

고금남, 2005, 「호남지역 고려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현수, 2004, 「남한지역 고려 고분의 부장품 매장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장근, 1996, 「군산 미룡동 고려고분 수습조사 결과보고」 『호남고고학보』 3 호남고고학회

군산대학교박물관, 1995, 「군산 옥정리 고분군」

김병수, 2004, 「장흥 하방촌 분묘유적에 대한 분석」 『박물관연보』 13호, 목포대학교박물관

———, 2005, 「진안 수천리 고려분묘에 대한 분석」 『박물관연보』 14호, 목포대학교박물관

———, 2007, 「호남지역의 고려분묘 출토청자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열, 1988, 「고려백자의 발생과 편년」 『고고미술』 177, 한국미술사학회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 유적」

———, 2001, 「탐진다목적(가물막이)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개요」

———, 2002,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 , 2006, 『진도용장산성』
- 문화재관리국, 1985, 『莞島海底遺物』
-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壽川里高麗古墳群 外』, 鎭安 龍潭덤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
- , 1995,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1992, 1993年
度 發掘調査-』
- 윤용혁, 1991,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 일지사
- 윤용이, 1986,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陶藝VI 青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 , 199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교재
- , 유홍준 2001, 『알기쉬운 한국도자사』, 학교재.
-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승창, 2001,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고찰』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재조
명』, 용인문화원
- 장남원, 2003, 『고려중기 청자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북대학교박물관, 1994, 『행정리 고분군』
- , 2001, 『군산 나포리 유적』, 『遺蹟調査報告書』
- , 2003, 『서해안 고속도로(군산-고창간)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
굴조사보고서』
- 전북대학교박물관·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大田-統營間 高速道路(茂朱-長溪
區間) 建設工事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 , 2001,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工事(舒州-
群山間) 北群山IC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 鄭良謨, 1989, 『高麗靑瓷』 『高麗靑瓷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 朝鮮總督府, 1911, 『중보교정 조선사찰사료』 上卷, 보련각
- 朝鮮遺蹟遺物圖鑑編纂委員會, 1992, 『朝鮮遺蹟遺物圖鑑』 12, 高麗篇 3
- 최완규, 1986, 『군산 여방리 기린마을 고분군 발굴조사개보』 『호남고고학보』 3, 호
남고고학회
-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 출토 청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화, 2005, 『부안 유천리출토 고려청자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성욱,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성격-기형과 태토 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潭陽 大峙里 遺蹟』
- , 2004, 『長興 下芳村 古墳群·瓦窯址』
- , 2004, 『益山 源水里 遺蹟』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군에 대한 발굴조사와 향후 전망

차순철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연구사개관
III 지역별 조사사례
IV 영남지역 고려분묘의 조성과 유지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는 918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후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기까지 총 474년간 존재한 통일국가이다. 한국사에서는 이 시기를 중세로 규정하고 있다. 고려의 성립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하는 변혁기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다. 고려는 신라의 골품 제도 아래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6 두품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과 지방호족세력이라는 두 집단이 결합되어서 성립된 국가로 종교인 불교에 기초한 유교적 통치구조를 갖추으로써 시기적으로 고대와 구별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전대와 달리 관료적 사회구조를 지향하였지만, 귀족 및 호족 그리고 유교적 이념을 갖춘 사대부를 제외한 일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신분적 제약과 차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귀족들은 왕족과 인척인 귀족 그리고 관료인 문반과 무반이었고, 중인은 서리와 기술관이었다. 지배층은 귀족과 중인이었고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이었다. 평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있는데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천민은 노비와 향, 소, 부곡민, 화척, 재인 등이었다. 따라서 이전 고대사회에서 신분의 차이에 따라 제약을 두었던 여러 부문에 대한 제약 역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신분과 경제력이 반영된 분묘 역시 이러한 제한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고려시대 때 영남지역의 행정명은 경상도로 동경(경주)과 안동도호부, 상주목, 진주목이 속한 2주 2부 6군 3현으로 24속군과 89속현을 거느렸다 이러한 행정단위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경순왕 9년(935년) 신라가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면서 경주는 '東京' 혹은 '慶州'로 그 위상이 변화를 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던 호족들의 세력 역시 함께 부침을 거듭하게 되며, 경주가 출신지역인 최승로(927~989년), 김부식(1075~1151년), 이의민(?~1197년) 등은 모두 대표적인 지방 호족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사 개관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전국적인 발굴조사에 힘입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적인 편중에 따라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고려시대의 묘제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왕릉 또는 호족들의 분묘는 그 소재지가 대부분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과 경기도 이북 그리고 강화도지역 등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리적 여건상 고려분묘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일본인 연구자들¹⁾과 북한 연구자들의 조사 내용²⁾에 기초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민통선지역³⁾과 강화도지역에 소재한 분묘들에 대한 발굴조사⁴⁾가 이루어진 점은 그나마 학술연구에 있어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이루어진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대부분 학술적 성격이기보다는 구제발굴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매장문화재 신고품을 중심으로 고려분묘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안동 서삼동 고분,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처럼 우연하게 발견된 벽화고분에 대한 학술조사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지만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토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발굴조사는 기존에 이루어진 소규모 발굴조사 성과를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 발굴조사의 진행은 그동안 소외된 느낌마저 있던 각 지역의 고려분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유적들은 대부분 발굴조사 후 이루어진 건설공사에 따라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들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는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외에도 묘제와 동경⁵⁾, 동전, 수저⁶⁾, 가위⁷⁾ 등과 같은 부장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형식학적 분류 및 편년작업을 통해서 고려시대 분묘의 연대와 편년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원용은 진주 평거동에 소재한 고려분묘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들 분묘가 조선시대 중기에 발굴된 적이 있음과 분묘의 석축 앞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이 후대에 새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⁸⁾

남진주는 상주 청리유적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를 중심으로 순서 배열법에 의한 형식분류작업을 통해서 도출된 편년안을 주변 지역 출토유물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⁹⁾ 이 연구에 따르면 청리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강진 용운리 9·10호가마 I 층, 해남 진산리 가마와 발도 해저유물과 비교되며, 그 연대는 9세기말~1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

이승일은 고려분묘에서 출토된 중국동전의 부장양상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서 당시의 동전 부장형태가 6단계로 구분되며, 중국동전이 주조된 직후 고려로 바로 유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전이 부장된 고려분묘의 피장자는 미부장된 분묘에 비해서 신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국제 무역관계 속에서 중국동전이 수입되어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고려동전은 11~12세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1) 조선총독부, 1916,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1916, 『조선고적도보 7』

2) 김중희, 1986, 『개성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 (1)·(2)』, 『조선고고연구』86-1·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9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리창언, 1990, 『고려둔칸 흙무덤의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90-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1996, 『고남리 일대에서 드러난 고려 평민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96-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2000, 『고려 둔칸 흙무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0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2002, 『고려 무덤에 관한 연구』, 『평양 일대의 벽돌칸무덤, 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지료원

3) 이종직, 1954, 『고려벽화 고분조사기』, 『한국고문화논고』, 을유문화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 보고서』

4) 강화 석릉(사적 제369호), 곤릉(사적 제371호), 능내리 석실분(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8호)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바 있다.

5) 이만영, 2003, 『고려경 연구』, 신유.

6) 이만영, 1975, 『한국시저의 형식분류』, 『역사학보』제67집, 역사학회, pp.111~146.

李麗曠, 1977, 『韓國古代の匙』, 『MUSEUM』310, 國立東京博物館, pp.24~34.

7) 정의도, 2007, 『고려시대 철제 가위 연구』, 『경문논총』장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pp.271~328.

8) 김원용, 1964, 『진주평거동 기년고려고분군』, 『미술자료』9, 국립박물관, pp.6~12.

9) 남진주, 1998, 『상주 청리 고려고분군 출토 청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진주, 2000, 『상주 청리 고분출토 청자 편년 연구』, 『미술사학연구』225·226호, 한국미술사학회, pp.37~66.

분묘에 부장되었다고 한다.¹⁰⁾(표 2)

이희인은 중부지방에서 조사된 고려분묘에 대해서 묘형에 따른 분류작업과 부장유물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기별 변천과정과 계층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수혈식석곽묘와 토광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묘제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묘제의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이 반영된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였다.¹¹⁾ 하지만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금구의 부장유무가 곧 신분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주영민은 남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분묘에서 출토된 도기를 중심으로 한 편년안 작성을 시도하였다. 그는 고려분묘의 묘제 변화과정 속에 있어서 부장품인 도기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대추정의 근거로는 중국동전과 같은 상대연대 자료를 사용하였다.¹²⁾

이상희는 영남지역의 고려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발을 중심으로 공반관계와 형식분류작업을 통해서 분류작업을 하였다.¹³⁾

김경화는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고려분묘 출토 반상기 청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전체 획기를 4기로 구분하였고, 己巳명 청자의 연대를 1329년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표 3)

김병수는 호남지역의 고려분묘 출토 청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분묘의 변천과정을 4기로 구분하고, 초기에는 석곽묘가 축조되다가 3기 이후부터 토광묘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4기 이후부터는 원의 간섭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점차 도자기 생산이 쇠퇴한다고 보았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묘제의 차이를 통해서 피장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발굴조사를 통해서 보고된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성과는 전국 혹은 지역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고, 銅鏡, 숟가락, 가위 등과 같은 표지유물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III 지역별 조사사례

경상도는 동경(경주)과 안동도호부, 상주목, 진주목이 속한 2주 2부 6군 3현으로 24속군과 89속현으로 구성된 행정구역으로 과거 신라의 영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지방호족들의 경우 대부분 개정에 자신의 생활기반을 갖추었지만 자신의 출신지역에 장원을 비롯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호족들의 세거지에 형성된 문중 묘지(先山)과 제실, 서원 등은 한 가문의 정신적인 지주로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 행정중심지역에는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과 관련된 묘지가 위치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분묘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도입된 풍수지리설을 중시하였고, 이를 분묘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세와 방위를 중시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신라 하대에 축조된 고분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분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호석의 형태는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한다. 분묘의 구조 역시 횡혈식석실분 또는 소형 수혈식석곽묘에서 점차 소형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목관묘, 석관묘, 석실분, 화장묘 등으로 묘형이 다변화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경상도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경주, 대구, 경산, 포항, 고령, 안동, 부산, 기장, 김해, 울산, 창원 등 경상도의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12세기까지는 청동제품의 부장이 많이 이루어

10) 이승일, 2002, 「고려묘 출토 중국전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희인, 2004, 「중부지방 고려고분의 유형과 계층」, 『한국상고사학보』제45호, 한국상고사학회, pp.107~136.

12) 주영민, 2004, 「고려시대 분묘 연구-도기 편년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상희, 2005, 「고려분묘출토 농경자의 편년연구 :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14) 김경화, 2005, 「영남지역 고려 묘 출토 청자에 대한 편년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김병수, 2007, 「호남지역의 고려 분묘 출토 청자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며¹⁶⁾, 점차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로 변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일부이지만 최상급의 상감청자나 중국 남송 경덕진요 등에서 생산된 청자나 백자가 부장유물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라도 지역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표형을 살펴보면 수혈식석곽묘 보다는 목관묘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분묘를 조성하던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고려 고종 25년(1238)에 일어난 원의 4차 침입으로 경상도 지역이 초토화된 이후부터는 지역별로 분묘의 조영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부장품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란에 의해서 근거지를 잃어버린 지방호족세력들에게 있어서 분묘 조성의 관리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경상도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1) 경주

경주지역은 과거 동경으로 경상도 제일의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분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다소 빈약한 느낌이 많다. 이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경주지역에 거주하던 귀족들의 대부분이 개경으로 이주하였고, 일부 남아있던 귀족 혹은 사대부계층 역시 잦은 변란에 의해서 분묘축조에 많은 경제력을 들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주지역에서 고려 분묘가 확인된 지역은 황성동, 천북면 물천리 유적 등이다.

황성동 유적은 형산경변에 위치한 충적대지로 청동기~조선시대까지의 많은 유적이 중복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⁷⁾ 고려 분묘는 강변에서 떨어진 안쪽 평지에서 확인되며 일부 분묘에서는 피장자의 신분을 지방관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과대금구가 확인된다. 유적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초기로 추정된다.

천북면 물천리유적은 구릉 사면에 조성된 분묘군으로 농선을 따라서 일렬로 축조되었다. 석곽묘와 목곽묘 그리고 화장묘가 함께 확인되며, 청동 도장, 금동제 장신구와 대금구 그리고 銅鏡의 존재로 볼 때 피장자는 지방의 호족 혹은 관인계층으로 추정된다.¹⁸⁾ 동전을 매납하면서 함께 부장된 模型錢은 울산 범어유적 11호 목관묘에서도 7점이 확인된 바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12~14세기로 추정된다.

2) 대구 · 경산

대구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내환동고분군과 옥수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경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산 임당유적으로 다수의 고려분묘가 확인되었고 옥산리유적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대구 내환동고분군은 고려~조선시대의 대규모 분묘군으로 고려시대부터 분묘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대부분 목관묘이지만 규모로 볼 때 토광묘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¹⁹⁾ 유적의 중심연대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16) 『宋史』 「高麗傳」 穆宗八年(1005), “...民家器皿, 實銅爲之...”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경주시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경주 황성동 유적』-567-1·10, 537-4, 535-8, 544-1·6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18)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

대구 봉무동고분군에서는 석곽묘와 목관묘가 함께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²⁰⁾, 인접한 불로동고분군에서는 토광묘 2기가 나란하게 배치된 모습으로 조사되었는데 부부묘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1-1호묘에서는 묘주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高尹' 명 청동도장이 출토되었다.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리유적은 행정구역이 서로 연결된 유적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분묘는 457기 정도가 조사되었지만 고려시대의 분묘는 3기가 보고되었다.²¹⁾ 출토유물로 볼 때 피장자의 성격은 일반민으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들을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입지를 달리하여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후대 유구가 선대 유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당유적에서 확인된 유적들이 시기별로 분포를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묘역의 축조와 유지관리에 대한 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²²⁾ 유적의 중심시기는 11세기 초~12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며, 일부 석곽묘에서 출토된 도기 병으로 볼 때 분묘의 조성이 10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3) 안동

안동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정하동유적과 서삼동 벽화묘 등이 알려져 있고, 매장문화재 신고품으로 고려분묘 출토유물이 보고된 사례가 많다.

정하동 유적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이다.²³⁾ 23호묘에서 출토된 正和通寶(1111~1117년)의 존재로 볼 때, 이 분묘의 상한연대는 12세기초이다.²⁴⁾

서삼동 벽화묘는 판석으로 축조한 석곽묘로 분구는 동서 4.1m, 남북 2.9m로 장대석을 둘러서 범위를 표시하였고 曲牆과의 사이 공간에는 薄石을 깔았다. 곽장의 형태는 'II' 자형으로 고려 석실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내부에는 인물도, 사신도, 성수도 등 채색 벽화가 그려졌다. 유적의 연대는 부장된 동전으로 볼 때 12세기초로 추정된다.

4) 상주

상주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청리유적, 가장리고분군, 헌신동유적 등으로 구릉 사면을 따라서 분묘가 입지하고 있다.

청리유적에서는 A지구와 H지구에서 주로 고려분묘가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유구는 76기이다.²⁵⁾ A지구와 H지구에서는 횡구식석곽묘²⁶⁾와 수혈식석곽묘의 시상으로 암·수키와를 깔은 사례가 확인된다. A-가-2호 횡구식석실묘와 A-가-2호, 24호, 26호 석곽묘의 시상재료로 사용된 기와편들은 유적 아래에 위치한 1~3호 기와가마에서 제작된 것²⁷⁾이므로, 이들 분묘의 피장자는 기와제작과 관련된 장인 혹은 감독자의 분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유적 내 고려분묘가 조성된 중심연대는 10세기 전반에서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A-다-52호묘에서 출토된 七寶文銅鏡의 존재와 H-가-73호묘에서 출토된 崇嶺重寶(1102년 초주), 端平通寶(1234년 초주)의 존재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적의 하한연대는 A-가-150호묘에서 출토된 象嵌菊花文팔각점시의 존재로 볼 때 14세기말로 추정된다.

가장리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고분군 사이에서 모두 2기의 고려시대 분묘가 확인되었

1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대구 내한동고분군』

20)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대구 봉무동고분군』

2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리유적 I』

22)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물천리고려묘군 유적』

23)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하동유적』

24) 임세권, 1981, 『서삼동벽화고분』, 안동대학교박물관

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상주 청리유적 I ~VI』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상주 청리유적X』

26) 동 보고서에서는 횡구식석곽묘를 석실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상주 청리유적 N』

다.²⁸⁾ 이중 13호묘는 삼국시대의 횡구식석실분의 석실을 재이용한 분묘로 특이한 사례이다.²⁹⁾ 출토유물로 볼 때 유적의 시기는 12세기로 추정된다.

상주 현신동유적은 삼국시대의 수혈식석곽묘로 구성된 고분군으로 4기의 고려시대 석곽묘가 확인되었다.³⁰⁾ 3호 횡구식석곽묘에서 출토된 청자접시로 볼 때 유적의 연대는 11세기에서 12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5) 김천

김천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는 모암동 유적에서 수혈식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³¹⁾ 출토유물은 녹청자 매병과 청동기명이 중심을 이루는데 유적의 연대는 11~12세기로 추정된다. 석곽 안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는데 관고리의 존재로 볼 때 호화스러운 분묘로 추정된다.



그림 1 김천 모암동 유적 출토 유물



그림 2 문경 모전동 유적 출토유물

6) 문경

문경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는 모전동 유적에서 토광묘와 수혈식석곽묘 등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³²⁾ 출토유물은 청자발과 철화매병 그리고 죽집계 등이며 유적이 11~12세기 초로 추정된다.

7) 울진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는 봉산리 유적에서 분묘 2기가 조사되었다.³³⁾ 출토유물 중 동경과 은제 뒤꽂이의 존재로 볼 때, 일반인보다는 상위계층의 분묘로 추정된다.

8) 고령

고령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지산동고분군 내에서 다 수 확인되었다. 구릉 능선 사면을 따라서 목관묘와 석곽묘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묘가 만들

2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상주 가창리고분군』

29) 충주 단월동고분군 A지구 1호분에서는 고려시대때 석실을 분묘로 재이용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건국대학교박물관, 1995, 『충주 단월동고분군 2차 발굴조사보고서』, pp.24~34.

3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 『상주 현신동유적』

3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김천 모암동유적II』

32)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문경 모전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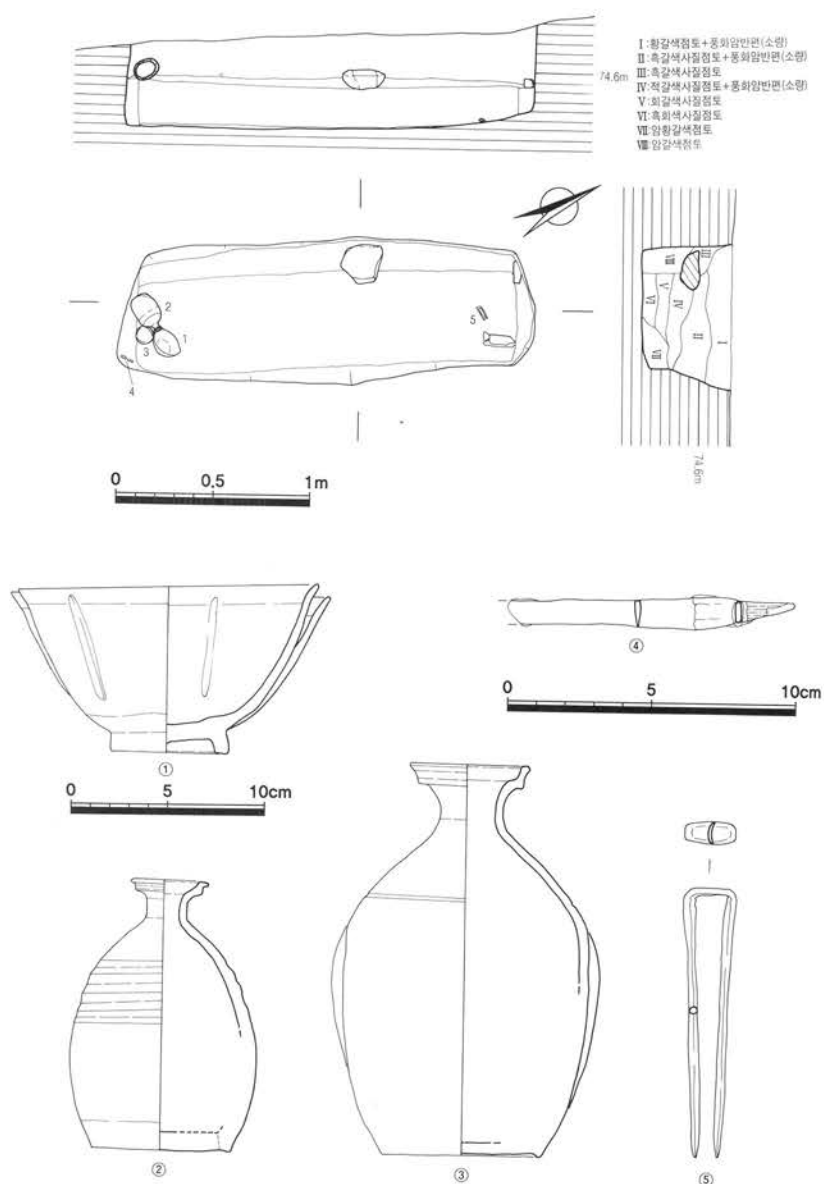
3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울진 봉산리유적』

어진 시기는 11세기~14세기까지로 거의 고려시대 전 기간에 해당된다.³⁴⁾ 또한 지표채집된 유물들 중에 象嵌蓮唐草文발의 존재가 확인된다.

9) 포항

포항지역에서 조사된 고려분묘는 당시 읍치가 위치했던 원동의 고현성과 인접한 호동을 중심으로 한 인덕산 주변에서 목관묘가 조사되고 있다. 시기는 고려초에 해당하며 철제과대가 확인된다.

그림 3 포항 호동 유적 출토 유물



34)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자산동 고분군VI』-고려·조선분묘-

포항 호동유적은 현 포항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주로 토광묘와 목관묘가 조사되었다.³⁵⁾ 출토유물 중 철제 과대금구의 비중이 높은 점과 은제 뒤꽂이가 확인된 점은 피장자의 신분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인덕동유적은 포항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공사구간으로 호동유적 동쪽에 위치한 구릉 및 평야지대이다. 조사결과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분묘 등이 확인되었다.³⁶⁾ 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元祐通寶(1086~1093년)와 正和通寶(1111~1117년) 그리고 도로유적에서 출토된 天禧通寶(1017~1021년)를 고려할 때 유적의 연대는 12세기~13세기로 추정된다.

인덕산유적은 포항 인덕산 절취공사에 따라 발굴된 유적으로 호동유적의 동쪽에 위치한다. 구릉에서 고려시대의 황구식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³⁷⁾ 분묘연대는 12세기로 추정된다.

원동 제3지구 유적은 포항시 오천읍 원동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인덕산유적과 인덕동유적 그리고 호동유적이 위치한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II구역에서 고려분묘 2기가 확인되었다.³⁸⁾ 분묘의 연대는 10~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 경상남도

1) 부산·기장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발굴조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장지역 역시 최근에 많은 수의 분묘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다.

부산 덕천동유적에서는 15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는데 그 부장유물에 있어서 주목되는 유적이다.³⁹⁾ 1호묘에서는 모두 39점의 중국동전이 출토되었는데 가장 연대가 내려가는 유물인 正隆元寶(1156년)를 상한 연대로 추정할 수 있다. 16호묘에서 출토된 은제 뒤꽂



그림 4 부산 덕천동 유적 출토 유물

3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포항 호동유적 I』(I 지구)

3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포항 인덕동 유적』

37) 보고서에서는 수혈식석곽묘로 보고되었지만 북쪽 단벽을 황구부로 쓴 황구식석곽묘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포항 인덕산 유적』, p.91, 도면 41.

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포항 원동 제3지구』

39) 심봉근·이동주·신인주·박희정, 2006, 『구포덕천동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이는 그 출토사례가 드물며, 다 수의 거울이 출토된 점도 특징적이다. 유적의 시기는 상감청자와 양각청자의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13세기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기장 교리유적에서는 완만한 구릉 사면에서 분묘가 확인되었다. 주변에서 취락유적이 확인되었으므로 거주지 주변에 분묘를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기장 방곡리유적에서는 구릉 사면에서 분묘가 조사되었다.⁴¹⁾ 13호 토광묘에서는 은제 뒤꽂이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피장자의 신분은 지방관리 정도에 준한 인물로 추정된다. 14호 토광묘에서 퇴화된 상감청자가 출토되었고, 50호 목관묘에서 元豐通寶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분묘가 조성된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

2) 김해

김해지역에서 고려시대 분묘가 조사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남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 중인 고려~조선시대 분묘유적에서는 수천여기의 분묘가 조사 중이므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중 외관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부장유물은 象嵌雲鶴文발 1점이었다.⁴²⁾

김해 안영리고분군에서는 지표수습된 청자상감운학문대접 1점이 보고되어있는데, 분묘에 매납된 부장유물로 추정된다.⁴³⁾

김해 대청유적에서는 구릉 사면에 조성된 고려분묘 2기가 확인되었는데,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한 유물 부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울산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주로 구릉에서 확인되며 묘제는 석곽묘와 토광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청자 가마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유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범어유적에서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서 조성된 분묘 33기가 조사되었고, 시기는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⁴⁴⁾

상북유적에서는 나말려초기의 건물지 주변에서 고려시대의 석곽묘 2기가 확인된다.⁴⁵⁾

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에서는 모두 6기의 고려시대 목관묘가 조사되었다.⁴⁶⁾ 유물 부장 방법에 있어서 모두 묘광선이 확인되는 윗부분에서 뜯 상태로 확인된 점으로 볼 때, 목관 상부에 매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의 연대는 10~12세기이다.

효문동 울동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고분군 내에서 고려시대 분묘 5기가 확인되었다.⁴⁷⁾ 이 유적의 특징적인 점은 고려백자가 부장된 Ⅲ-83호묘의 존재를 들 수 있다.

4) 진주·하동

진주·하동지역에서는 일찍이 매장문화재 신고품으로 접수된 고려시대 분묘 출토유물에 대한 존재가 알려져 있다.⁴⁸⁾ 진주 무촌유적에서는 구릉 능선을 따라서 조성된 고려~조선분묘들이 다 수 조사되었다.⁴⁹⁾ 유적의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40) 복천박물관, 2006, 『기장 교리유적』

41) 양상현·김영민·신준섭·최승희·이보경·이민경, 2007, 『기장 방곡리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42) 필자가 실견하였다.

43) 김영대·현희정·이유진, 2004, 『김해 안영리 고분군』, 경남문화재연구원. p.319, 도면 143-①

44) 전호태·김영민·김경화·김도현·서정주, 2000, 『울산범어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4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상북유적』

46) 김현식·김경화·황대일·이현지, 2004, 『울산효문동죽전곡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47) 서정주·박찬문, 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Ⅲ』, 울산문화재연구원

48) 하동군 적암면 우거리 1424번지에서 출토된 象嵌梅竹鶴文梅瓶과 하동군 양포면 우복리 산154번지에서 출토된 청자 발과 양각 청자 접시 등이 알려져 있다.



그림 5 하동군 적양면 우계리 1424 출토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Ⅲ)



그림 6 하동군 양포면 우복리 산154 출토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Ⅲ)

5) 창령

창령지역에서 고려시대 분묘가 조사되거나 매장문화재로 유물이 출토된 사례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창령 계성고분군에서는 구룡 사면에 조성된 고려분묘가 확인되었는데⁵⁰⁾, IV-1호묘에서 출토된 상감청자 여지문발은 기존에 제작지로 알려진 강진이나 부안지역이 아닌 지방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⁵¹⁾ 유적의 연대는 I-51호묘에서 확인된 해무리굽 완으로 볼 때, 12~13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6) 밀양

밀양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아직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려시대 분묘연구에 있어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밀양 고법리 박익(1332~1398) 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⁵²⁾ 이 무덤은 조선 초기인 세종 2년(1420)에 만들어진 분묘⁵³⁾이지만 고려시대 석실분의 장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벽화묘로 고려말에 지방에 낙향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분묘가 다시 지방에 축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7) 의령

의령지역에서 조사된 고려분묘는 경산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⁵⁴⁾ 구룡에 위치한 목관묘로 유적의 연대는 13세기로 추정된다.

-
- 40) 복천박물관, 2006, 『기장 교리유적』
- 41) 양상현·김영민·신준섭·최승희·이보경·이민경, 2007, 『기장 방곡리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 42) 필자가 실견하였다.
- 43) 김영대·현희정·이유진, 2004, 『김해 안양리 고분군』, 경남문화재연구원, p.319, 도면 143-①
- 44) 전호태·김영민·김경화·김도현·서정주, 2000, 『울산범어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 4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상북유적』
- 46) 김현식·김경화·황대일·이현지, 2004, 『울산효문동죽전곡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 47) 서정주·박찬문, 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Ⅲ』, 울산문화재연구원
- 48) 하동군 적양면 우계리 1424번지에서 출토된 象嵌梅竹文梅瓶과 하동군 양포면 우복리 산154번지에서 출토된 청자 발과 양각청자 접시 등이 알려져 있다.
- 49) 경남고고학연구소, 2004, 『진주 무촌』-고려·조선묘군(1·2)-
- 50) 호암미술관, 2000, 『창령계성고분군(하)』,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령계성신라고총군』
- 51) 호암미술관, 2000, 『창령계성고분군(하)』, p.523.
- 52) 심봉근, 2002, 『밀양고법리벽화묘』, 동아대학교박물관.
- 53) 김광철, 2002,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밀양고법리벽화묘』, 동아대학교박물관, p.173
- 54) 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의령 경산리고분군』

8) 거창

거창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 중 둔마리 벽화묘는 횡구식 석실분으로 내부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다.⁵⁵⁾ 둔마리 벽화묘는 판석으로 축조한 횡구식석실묘로 동실과 서실 두 분묘가 나란하게 배치된 모습이다. 분구는 동서 4.5m, 남북 4.3m 정도의 방형 구획안에 장대석을 둘러서 분묘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석실 중앙에 방향 창을 만든 점은 고려 석실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동실 내부 벽면에는 주악천인상 등 여러 인물상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유적의 연대는 벽화에 표현된 인물상으로 볼 때, 13세기~14세기 초로 추정된다.⁵⁶⁾

9) 산청

산청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그 사례가 적지만 산청 생초고분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분묘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수혈식석곽묘 10기와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는데 비교적 내륙지역에서 확인된 분묘군으로 조성시기는 고려 전 시기에 해당한다.⁵⁷⁾

10) 함양

함양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그 사례가 적지만 인접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 백천리유적에서는 구릉 사면에 조성된 고려분묘 2기가 확인되었는데,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한 유물 부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적의 연대는 11~12세기로 추정된다.⁵⁸⁾

12) 합천

합천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그 사례가 적지만 인접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장문화재 신고품 중에는 고려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짐작되는 유물이 확인된다.⁵⁹⁾

IV 영남지역 고려분묘의 조성과 유지

이상과 같이 영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를 살펴본 결과 21개 지역의 37곳의 유적에서 총 326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유적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경상도지역에서 고려분묘가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세기를 기점으로 분묘들의 축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요의 침입(993~1019년), 이자겸(1126년)과 묘청의 난(1135~1136년), 무신의 집권기(1170~1258년) 그리고 원의 침입(1231~1259년)으로

5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거창둔마리벽화고분 및 회곽묘발굴조사보고』

56) 임세권, 1981, 『서삼동벽화고분』, 안동대학교박물관

57) 조영제·류창환·장상갑·윤민근, 2006, 『산청 생초고분군』

58)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함양 백천리유적』

59)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345-1번지에서 출토된 象嵌菊花文瓶이 알려져 있다.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1998,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3집), p.63.

이어지는 고려 내부의 정치혼란과 외적의 침입 등에 의해서 기존에 구축된 사회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이다. 또한 13세기는 원의 침입과 이에 따른 수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제약이 분묘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되는데, 청동기명을 부장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⁶⁰⁾

또한 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향리나 호족들은 그들의 생활근거지인 지방보다는 새로운 출세의 기반이 된 개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기고 분묘 역시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⁶¹⁾ 이러한 모습은 화장의 성행과 개경에 묘지를 만들려는 지배계층의 욕구 등에 의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관리로 임용된 이들은 사후에 고향이나 부임지에 매장되지 않고 개경에 묘지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실제로 오원경(1128~1180)의 묘지석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런 장례풍습은 매우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경 주변에 묘지를 만드는 행위는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승주군수 오원경이 1189년 10월 27일에 사망하자 11월 13일에 화장을 한 후, 1181년 정월에 개경으로 유골을 운구한 후 4월 16일 귀법사 산기슭에 매장하고 있음을 묘지석에서 밝히고 있다.⁶³⁾

따라서 지방에서 확인되는 고려분묘는 지방에 남은 호족 출신들, 즉 향리를 중심으로 하는 토호세력에 의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세력의 부침에 따라서 분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호남지역의 고려분묘를 연구한 김병수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⁶⁴⁾

V 맺음말

고려시대는 이전 고대사회와 달리 관료 중심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가 건국된 이후 지방에 자리 잡았던 호족 세력들은 점차 수도인 개경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근거지인 지방은 장원과 같은 농장이 경영되면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를 살펴보면 시기에 따른 변화와 분묘가 조성되는 숫자의 급격한 하향세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분묘의 조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으로서는 요와 원의 침입, 이자겸과 묘청의 난, 무신의 집권기로 이어지는 고려 내부의 정치혼란을 연결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 중앙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은 고려시대에도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경주변에서 출토된 여러 묘지석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런 풍습은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중앙 관료들의 분묘가 조성되기보다는 지방 향리와 같은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분묘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묘지석의 조성이 중앙의 문무양반, 즉 귀족사회의 전유물이라는 의견⁶⁵⁾을 고려한다면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분묘 조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분묘는 황구식석실분, 수혈식석곽묘와 목관묘(토광묘 포함)로 구분되며 일부의 사례지만 와관묘와 같은 특수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묘제의 차이는 앞서 선학들의 지적처럼 피장자의 신분과 관계될 가능성이 크며, 함께 부장된 유물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추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60) 13세기부터 계속된 원의 침입은 청동기명을 제작하는 원료인 구리의 생산과 조달문제를 어렵게 했다고 한다.

61) 『고려사』(형법지)에서는 1품에서 6품 이하까지 품계별로 무덤을 쓸 수 있는 범위를 규정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품은 사방 90보, 2품은 80보, 3품은 70보에 높이가 1장이며,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모두 30보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8척을 넘지 못하였다.

62) 김용선, 2004,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63) 국립중앙박물관, 2006,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 pp.112·113.

64) 김병수, 2007, 『호남지역의 고려 분묘 출토 청자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

65) 김용선, 2006, 『고려 묘지명-들에 새겨진 삶과 사회-』,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p.140.

한편 일부지만 개경지역에 주로 축조된 황구식석실분의 존재는 지방에 낙향한 사대부의 분묘로 내부를 장식한 벽화와 칠관 등의 사용은 중앙귀족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황구식석실분의 경우 그 분포가 독립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역시 일반적인 형태의 분묘가 아님을 입증한다.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고려초~중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목관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된다. 청자 보다는 청동제 금속용기의 부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청동제 용기의 부장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목관묘는 거의 전 시기를 통해서 확인되며 부장유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묘이지만 그 구조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외에도 화장묘, 외관묘, 석관묘 등의 분묘가 확인되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묘는 장골용기를 사용했는데, 목제 용기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외관묘는 일부 확인되며 상감청자 등이 부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민들이 사용한 분묘형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석관묘의 경우 영남지역에서는 확인된 사례는 드물지만 일부 조사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묘제가 아닌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고려시대는 사회구조가 복잡화되었고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를 일상생활에 수용하는 등 장묘문화에 있어서도 전대와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근기지역과 지방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분묘의 축조와 유지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뚜렷이 구분되어진다. 즉 근기와 지방 모두 고려 초기에는 분묘가 축조되지만 중기이후로 들어서면서 중앙중심으로 편재된 사회경제 여건상 분묘의 축조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조선 건국직전까지 낙향한 사대부 등에 의해서 분묘가 축조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한 집중현상은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는 고려 중기이후부터는 점차 지방 향리세력과 일반민의 분묘 축조를 제외한다면 지속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와 원의 침입 그리고 이자겸과 묘청의 난과 같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지방사회가 피폐해지면서 지속적인 분묘축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영남지역에서 이루어질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묘제와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 외에도 유물부장 행위가 의미하는 의례적 성격이나 누세대적으로 조영된 분묘에 대한 유지 관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표 1 남진주의 상리유적 출토 청자의 상대편년표

기형	도기	해무리굽완	병		사발					접시
	1		I-1	I-2	I	II-1	II-2	III-1	III-2	
호수										
다81가곽2	■									
가19	■	■								
가91	■				■					
나59		■								
가196, 나30			■							
가52			■							
나41						■				
가110						■				
다42						■				
가169						■				■
가35						■	■			■
가234						■	■			■
가2, 165, 곽32							■			■
나56				■			■			■
나63, 106				■				■		■
나66				■				■		■
나97				■				■		■
가176, 225				■					■	■
다90				■					■	■
가158				■					■	■
가53				■					■	■
나25				■					■	■
가96				■					■	■

표 2 이승일의 고려분묘의 단계별 편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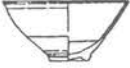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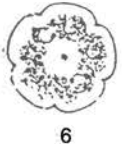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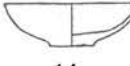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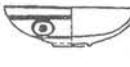




			동 곳				
 1023  1039	 998	 1	 2	 3	 4	 52	I
 1068  1078		 6	 7	 8	 9	 10	II
 1101  1102	 1102  1102	 11  12	 13			 14	III
 1158  1195		 15		 16	 17	 18	IV
 1234  1265		 19	1. 장산리 3호, 2. 금천동 2-1-155호, 3. 마북리 3호 4. 금천동 2-1-155호, 5. 단월동 3호, 6·7. 금천동 2-1-207호. 8. 금천동 2-1-30, 9. 금천동 2-1-55호, 10. 금천동 2-1-49호 11. 금천동 2-1-57호, 12. 금천동 2-1-181호 13. 금천동 2-1-111호, 14. 방내리 2호, 15. 덕천동 1호 16. 금천동 2-1-50호, 17. 명암동 1호, 18. 동천동 266호, 19. 구룡리 2호.				V
 1368							VI

표 3 김경화의 영남지역 고려묘 출토 청자 편년표

시기	구분		형식별발도면	공반유물	절대연대자료	편년	
	유형	형식					
제 1 기	1 단계	Ai	가				10세기 초기
			나				10세기 초기
			다				10세기 중기
	2 단계	Aii	가				10세기 중기 ~11세기 초기
			다a				11세기 중기
			제 2 기	Bi	가		
다a			11세기 말기				
bii	다a				 000: 1073년	11세기 말기 ~12세기 중기	
제 3 기	C	나			 (문공유묘 출토 :1159년 추정)	12세기 중기 ~13세기 초기	
		다a				13세기 초기 ~13세기 중기	

표 4 영남지역 고려분묘 유적 비교표

번호	유적명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비고
1	경주 황성동						
2	문경 모전동	=====			-----			
3	상주 청리	=====			=====			
4	산청 생초	=====			=====			
5	고령 지산동	-----	=====	=====	-----		-----	
6	정산 임당	-----	=====	=====				
7	상주 현신동		=====	=====				
8	김천 모암동		=====	=====				
9	함양 백천리	=====	-----	=====				
10	김해 대청	=====	-----	=====				
11	포항 원동 3지구	=====		-----				
12	안동 서삼동 벽화묘		---					
13	포항 인덕산		=====	=====				
14	상주 가장리		=====	=====				
15	울산 상북		=====	=====				
16	안동 정하동		-----	=====				
17	포항 인덕동		=====	=====	-----			
18	경주 불천리	-----	=====	=====	-----			
19	기장 방곡리	-----	=====	=====				
20	상주 현신동		=====	=====				
21	창령 계성		=====	=====				
22	울산 효문동울동		=====	=====				
23	울산 효문동죽전곡		=====	=====				
24	대구 내환동		=====	=====				
25	진주 무촌		=====	=====				
26	부산 덕천동		=====	=====	-----			
27	경주 천북면 물천리		=====	=====	=====	-----		
28	대구 봉무동	-----	=====	=====				
29	대구 불로동		=====	=====				
30	김해 대성동		=====	=====				
31	울진 봉산리		=====	=====				
32	기장 교리		=====	=====				
33	의령 경산리		=====	-----				
34	거창 둔마리 벽화묘		=====	-----				
35	울산 뱀어유적		=====	=====				
36	김해 안양리		=====	=====				
37	밀양 박익묘				1420			

List of Plate

1 참외모양 주전자 靑磁 瓜形 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Goryeo Dynasty 10th Century

H 23.0 D 8.2(m) 7.8(b)

Excavated in Bo-s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2 청자 일팔 靑磁 一拵

Celadons

Goryeo Dynasty 11th ~ 12th Century

H 25.0(right bottle)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3 국화무늬 꽃모양 잔 靑磁 壓出陽刻 菊花文 花形 盞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mpressed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4.1 D 11.0(m) 3.9(b)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4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Goryeo Dynasty 11th Century

H 6.5 D 17.6(m) 5.8(b)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5 접시 靑磁 椀匙

Celadon dish

Goryeo Dynasty 11th Century

H 3.6 D 13.8(m) 5.5(b)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6 넝쿨무늬 광구병 靑磁 鐵花 唐草文 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painted vine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23.0 D 10.8(b)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7 넝쿨무늬 광구병 靑磁 鐵花 唐草文 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painted vine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25.0 D 8.6(b)

Excavated in Mu-an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8 주구가 있는 항아리 靑磁 注口 壺

Celadon Jar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8.5 D 6.0(m) 5.0(b)

Excavated in Jin-do(island)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9 명문이 쓰여진 대접 靑磁 「乙巳」銘 大椀

Celadon Bowl with ink-written inscription

Goryeo Dynasty 1065 or 1125

H 6.6 D 16.5(m) 5.2(b)

Excavated in Gwangju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10 청자 일팔 靑磁 一拵

Celadons

Goryeo Dynasty 12th Century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H 23.8(Maebyeong)

Gwangju National Museum

11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7.9 D 16.4(m) 6.2(b)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12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7.5 D 16.4(m) 5.7(b)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13 접시 靑磁 模匙

Celadon Dish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5.0 D 15.7(m) 5.7(b)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19 입넓은 병 靑磁 廣口瓶

Celadon Bottle

Goryeo Dynasty 11th Century

H 29.8 D 7.9(m) 9.4(b)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14 접시 靑磁 模匙

Celadon Dish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3.9 D 12.6(m) 4.9(b)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20 국화무늬 주전자 靑磁 象嵌 菊花折枝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15.0 D 3.7(m) 9.5(b)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15 매병 靑磁 梅瓶

Celadon Bottle, Maebyeong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23.8 D 10.2(b)

Excavated in Ham-pyeo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21 모란넝쿨무늬 대접 靑磁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mpressed peony vine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H 6.3 D 18.8(m) 5.0(b)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16 청자 일팔 靑磁 一括

Celadons

Goryeo Dynasty 11th ~ 12th Century

H 29.8(bottle)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2 청자 일팔 靑磁 一括

Celadons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26.2(bottle)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17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 陰刻 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H 7.8 D 16.0~16.9(m) 5.9(b)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3 꽃모양 접시 靑磁 花形 模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1.4 D 8.9(m) 4.2(b)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18 연꽃잎무늬 접시 靑磁 陰刻 蓮瓣文 模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H 4.6 D 16.8(m) 6.2(b)

Excavated in Sacheon-ri Jin-an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4 꽃무늬 접시 靑磁 堆花 花文 模匙

Celadon Dish with underglaze painted flower desig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3.0 D 11.9(m) 4.0(b)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5 모란무늬 접시 靑磁 壓出陽刻 牡丹文 標匙
Celadon Dish with impressed peony desig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3.6 D 16.5(m) 5.3(b)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6 소용돌이무늬 주전자 靑磁 貼花 渦線文 注子
Celadon Pitcher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15.1 D 17.1(m) 9.7(b)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7 입넓은 병 陶器 廣口瓶
Earthenware Bottl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26.2 D 6.7(m) 9.2(b)
Excavated in Jeong-eup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8 청자 일괄 靑磁 一括
Celadons
Goryeo Dynasty 13th ~ 14th Century
H 19.5(pitcher)
Excavated in Go-chang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29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 靑磁 象嵌 菊花文 花形 標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3th ~ 14th Century
H 3.3 D 10.4(m) 5.5(b)
Excavated in Go-chang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30 원무늬 접시 靑磁 陰刻 圓文 標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circle design
Goryeo Dynasty 13th ~ 14th Century
H 3.6 D 10.2(m) 6.0(b)
Excavated in Go-chang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31 국화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 菊花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 Pitche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3th ~ 14th Century
H 19.5 D 10.7(b)
Excavated in Go-chang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32 항아리 靑磁 缸
Celadon Jar
Goryeo Dynasty 13th ~ 14th Century
H 9.8 D 22.2(m) 16.7(b)
Excavated in Go-chang Jeollabuk-do
Jeonju National Museum

33 청자 일괄 靑磁 一括
Celadons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6.4(right)
Excavated in Go-heu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34 국화넝쿨무늬 항아리 靑磁 象嵌 菊花唐草文 有蓋 小壺
Celadon Jar with a lid, inlaid chrysanthemum vine desig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6.4(total) D 3.0(m) 4.1(b)
Excavated in Go-heu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35 국화무늬 합 靑磁 象嵌 菊花文 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H 3.6 D 7.3(m) 9.0(b)
Excavated in Go-heung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36 연꽃·버드나무무늬 매병 靑磁 象嵌 柳鶴?蓮蝶文 梅瓶
Celadon Bottle, Maebyeong with inlaid willow, crane, lotus, and butterfly design
Goryeo Dynasty 14th Century
H 25.8 D 9.5(b)
Excavated in Gwang-ju Jeollanam-do
Gwangju National Museum



Gangjin Celadon Museum